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東醫寶鑑序

醫者雅言軒岐軒岐上窮天紀下極人理宜不屑
乎記述而猶且說問著難再法後世則醫之有書
厥惟遠哉上自倉越下逮劉張朱李百家繼起論
說紛然剽竊緒餘爭立門戶書益多而術益晦其
與靈樞本旨不相逕庭者鮮矣世之庸醫不解窮
理或倍經訓而好自用或泥故常而不知變眩於
裁擇失其關鍵求以活人而殺人者多矣我

宣宗大王以理身之法推濟衆之仁留心醫學軫念民
瘼嘗於丙申年間

召太醫_臣許浚

教曰近見

中朝方書皆是抄集庸瑣不足觀爾宜哀聚諸方輯
成一書且人之疾病皆生於不善調攝修養爲先
藥石次之諸方浩繁務擇其要窮村僻巷無醫藥
而夭折者多我國鄉藥多產而人不能知爾宜分
類並書鄉名使民易知浚退與儒醫鄭碕太醫楊
禮壽金應鐸李命源鄭禮男等設局撰集略成肯

통권 12호

1990

제11권 제2호 · 통권12호 · 1960년 10월7일 창립

대한치과의사학회

VIOLET DX

KOREA YOSHIDA New Chair Mount Unit
VIOLET-DX assures efficient dental
treatment in reliable performance.



● 각 지역 대리점 서울대리점 : 미동양행 ☎ 757-3661 대구대리점 : 한독치재 ☎ 425-4451
부산대리점 : 상대중합상사 ☎ 87-4459 광주대리점 : 광주치재 ☎ 224-1542 대전대리점 : 한일치재 ☎ 26-5910



株式 韓國吉田製作所
THE KOREA YOSHIDA DENTAL MFG CO. LTD

京畿道 安養市 虎溪洞 100番地
TEL : (0343) 53-0940 (代)
FAX : (0343) 53-0943

光州營業所 및 A/S 管理
TEL : (062) 222-2783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0



대한치과의사학회

表紙의 컷

本號 表紙의 컷은 「東醫寶鑑」序文의 一部分이다.

컷으로서의 效果가 果然 어떠할까 會員의 關心이 있기를 바란다. 계속 이러한 試圖를 構想해본다. <李 漢 水>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11卷 第2号 通卷12号

目 次

卷 頭 言 李丙台 (6)

綜 說

○ 近世 口腔外科學의 開拓者 Par'e 金正均 (7)

○ 近世 獨逸 18世紀의 齒科人들 洪禮杓 · 金官興 (9)

○ 齒科界團體治動(8) 辛在義 (13)

原 著

○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基礎調査 第3報 李漢水 (17)

教 室 史

○ 카톨릭大學 醫學部 齒科學教室 略史 奇昌德 · 金光鉉 · 崔牧均 (33)

其 他

○ 周大成博士 探訪 李丙台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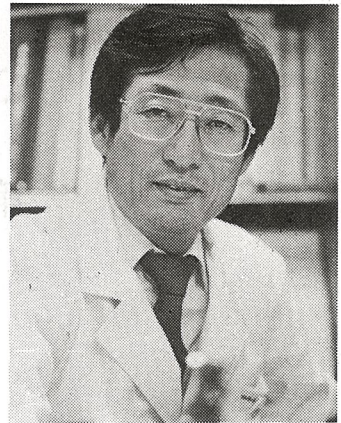
○ 學會 消息 (44)

○ 表紙의 窠 說明 李漢水 (4)

大韓齒科醫史學會 發行

中國을 다녀와서

會 長 李 丙 台



中國은 어떤 나라인가?

中國의 齒科界는 어떠한가?

北韓과 더불어 中國도 미지의 세계였다.

歷史나 地理 그리고 언어와 국어를 연구하거나 論하려면, 同族인 北韓 그리고 교류가 필요하다. 다행하게도 확회 행사로 추진했던 中國의 齒科界 訪問에서 많은 사향을 터득하여 <中國口腔醫學>에 관한 정보를 가져 오게 되었다.

13억 상당의 인구를 가진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齒醫學을 <口腔醫學>이라 한다. 그리고 33개 齒科大學[口腔醫學院 口腔學界 口腔科라 하여 醫學院 또는 醫學系(우리의 醫大)에 속하여 있음]에서 1년에 약 800여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된다. 치과의사 수는 약 13,000명 정도여서 1대 10만이다.

또한 치과의사 免許제도도 없고 검정제도가 省[22개, 5개 自治州, 3특별시 6시 縣(郡)이 있음]과 자치주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韓國의 醫科界에도 산적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中國의 <口腔科>의 문제점은 다른면에서 심각한 면이 많았다. 특히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實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學會의 입장에서 中國口腔醫學史의 碩學 周大成 博士와 함께 討論의 시간을 가졌다는 일은, 1990년 大韓齒科醫史學會에게 아주 보람있는 일이었다.

中國 口腔醫學界와 學問 交流의 물꼬를 트는데, 張震康會長(北京醫科大學 口腔醫學院長 겸 中華醫學會 口腔醫學會長)과 약속과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내년 부터 中國內에서 있는 국제학회나 학술대회에 韓國齒科醫師도 초청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연의 행사가 大韓齒科醫師協會 산하 大韓齒科醫師學會의 행사로 이루어 졌음은, 분명 齒協의 전 현 임직원 그리고 學會의 명예회장 전 회장 각 두 분,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확신한다.

이번, 北京과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口腔醫學을 探問한 것은 北韓의 것을 미루어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러한 사실을 권두언에 쓰게된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한다.

1990년 12월 25일

綜 說

近世 口腔外科學의 開拓者 Par'e

金正均*

Ambroise Par'e(1517~90)는 근세 외과학의 개척자이다. 1517년에 프랑스의 서부 Bretagne반도에서 탄생했다. 유년시절에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의학에 투신한 동기는 16세 때에 파리에서 이발외과의사(Chirurgien barbier) 조수로 근무한 것으로 그후 그는 학문은 없었으나 많은 임상경험을 얻어 그것으로 프랑스 육군의 군의(軍醫)로 활약할 수 있었고, 37세에 이르러 파리 외과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외과박사 학위도 받았다. 그는 해부학으로 학위를 받아 그의 임상경험과 더불어 더욱 명성을 얻어 드디어는 프랑스 황실의 주치의사까지 되었다.

1536년 프랑스의 이탈리아 원정 때에 그의 중군 경험을 기록한 의학서적은 1545년에 La m'ethode de traiter les plaies라는 제호로 간행되었고, 그의 해부학 저서는 1549년에 나왔다. 그는 경험이 없는 지식은 외과의사에게 충분한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가 혈관결찰법을 총상환자에게 시술해서 그 좋은 점을 실증한 때는 1552년이다. 그리고 그가 프랑스 황실의 외과의사들의 수석책임자가 된 때는 1562년으로 더욱 많은 활약을 하면서 좋은 노후 생활을 마쳤다.

그의 공헌 중에서 우선 지적할 점은 그가 당시까지 천시되었던 외과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다른 분야 이를테면 내과 산부인과 의사들만큼 높힌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의지(義肢)의 발명과 이상위치의 태아를 자궁 내에서 위치전환을 시키는 방법과 외과적 절단술에서 출혈방지의 목적으로 혈관을 결찰시키는 법 들을 새로 발명한 일이다.

그의 치과외학에 관한 기록은 구강외과에 관한 것이 뛰어나다.

발치수술에서 그는 먼저 환자의 위치를 지적하였다. 되도록 저위(低位)를 취하게 하며 때로는 마루에 그대로 앉히기도 하고 환자의 두부는 술자의 팔로 확실히 고정시킬 점을 강조하였다. 수술은 우선 치은분리를 확실히 하며 충분히 동요시킨 다음에 elevator로써 주로 발치할 일을 강조했다. 발치겸자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의깊게 응용하도록 주장했다.

발치후의 출혈은 수지(手指)로써 치은을 압박할 것과 또 그러한 지혈은 치조골의 손상을 정복시키는 목적도 겸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치아의 재식술(再植術)이 임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그가 증명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그는 탈구

* 서울 · 金正均齒科醫院, 本會 前會長

된 치아를 인제치아와 결찰시켜 고정시켰다.

치아의 이식술도 그는 언급하고 있으나 직접 시술한 일은 없고 단지 그러한 시술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었다.

난발치(難拔齒)의 경우는 치관부위만을 절단시키고 치수에 대해서는 약물에 의해 그 지각이 소실 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가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다. 또 그는 치통이 격심할 적에는 환치(患齒)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릴 점과 폭력에 의한 발치는 하악관절의 탈구 혹은 뇌와 안구의 이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으며 치조골의 일부까지도 손상이나 제거하는 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은 간략한 그의 공적 내지는 발견을 주로 구강외과 영역에서 본 것이나 그가 치과임상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실은 물론이다. 당시 치과는 분립된 때가 아니며 외과의 일부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치아우식증의 원인을 그는 열성(熱性) 또는 냉성(冷性) 채액의 충혈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그 병리를 권장하였다.

치석제거의 필요성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치마분의 사용도 설명하였다.

생치장해(生齒障害)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많은 치료제와 치료법을 기술한 점은 역시 외과의사로서의 그의 탁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리라. 그는 격통과 발열 기타의 우발증이 있을 때에는 생치장해로 사망하는 예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치은절제를 권장하였다.

綜 說

近世獨逸 18世紀의 齒科醫人들

洪 禮 杓* 金 官 興**

18세기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 치과의학이 가장 발달된 점은 알려진대로 이나, 독일에서는 그 후반 부터는 임상 기술면에서 크게 발달되었다. 전자의 발달보다는 다소 늦으나 그러나 전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그들 특유의 새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세 독일 치과의학의 개척자로서는 Philipp Pfaff를 든다. 그는 프로시아의 왕인 Frederick 2세위 치과 주치의사이였다. 그가 1756년에 간행한 「인간의 치아와 그 질환」은 불과 184페이지인 책이나, 여기에는 치아의 해부와 생리와 병리 그리고 그 치료와 보철까지를 다룬 것으로 이것은 순수한 치과의학 학술서적이다.

물론 치과의학 관계의 서적이 독일에서 나온 역사는 15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그러나 엄격한 뜻의 학술서적은 본서가 그 효시이다.

1530년에는 Michael Blum(?~?)에 의해 「치과학서」가 나왔고, 다시 1544년에는 Walter Hermann(?~?)에 의해서 독일어로 된 다중위생을 위한 「치과학서」가 간행되었으나, 이상의 2종은 통속적인 내용으로 엄밀히 보아 학술서적이라곤 하기 힘든다는 견해가 정설이다.

전자인 본서는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를 언급한 내용이나 물론 그것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많다.

이 저자는 과잉치아와 지치에 관해서도 설명했고, 발치후의 지혈에는 송진정유(松津精油)를 이용해 압박시켰다. fistula는 그 대다수가 충치에 기인됨을 지적하고 발치를 권장했다. 보철 기술은 프랑스의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며, 인공치아 재료로는 상아, 동물의 뼈, 물소의 치아, 해표와 사람의 치아, 혹은 은(銀)이나 진주, 때로는 동(銅)을 착색시켜 사용하였다.

그런데 저자인 Pfaff의 업적으로 후세에 전해져야 될 것은 그가 보철에서 석고모형을 사용한 점이다. 그는 wax로 인상채득을 하고 석고로 모형을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치수로출의 경우 복조(capping)를 하고 그후에 충전해야 됨을 지정한 사실이 다.

이제 18세기의 독일 치과의사들은 주요 업적을 대략 연대적으로 약기하면 이러하다.

Ludwig Cron(?~?)

Cron은 1717년에 「자락법(刺絡法) 및 발치술에

* 서울·洪禮杓齒科醫院, 本會 理事

** 서울·金官興齒科醫院, 本會 理事

능달한 이발사들」이라는 책을 간행했다. 그는 발치하기 전에 치은박리를 할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것은 일찌기 로마시대의 Aulus Cornelius Gelsus(30 BC? ~ 50AD?)가 최초로 권장한 것이긴 하다. Cron은 비록 이발사를 본적으로 했으나 당시는 이발사가 곧 치과의사이기도 했다.

Lorenz Heister(1683~1758)

Heister은 1711년에 「치통」이라는 논문을 쓰고 1718년에 그것을 간행했다. 본서에는 여러 치아질환의 치료법이 기재되었다.

저자는 충치의 충진법에 대해 많이 언급하면서 치수의 진정문제로서 정향유(丁香油) 등을 열거하고, 금박과 연박(鉛箔) 또는 연(鉛)의 작은 덩어리(塊)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발치기술 부문에서는 상하악 치아에 따라 환자의 위치 내지는 자세를 달리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그가 가철의치에 대해 최초로 기술한 점이다. 그는 특별한 유지장치는 없었으나 인제치아의 undercut을 이용한 국부의치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의치는 당시에는 갖가지 보철물이 도리어 인제치아를 크게 손상시키는 사실을 경험하고 착안한 것이다.

저자의 본업은 외과의사이었으나 당시만 해도 치관은 외과에서 주로 취급한 시대이었다.

Johann Junker(1679~1759)

외과대학의 외과교수이던 그는 1721년에 전공인 외과학 관계 저서에 치과질환을 포함시켰고, 이어 치과의학 관계 서적인 「치과질환」을 1740년, 「생치 곤란」을 1745년, 또 「치통」을 1746년에 각각 간행했다. 그 내용은 당시까지 알려진 것들이었으나, 상악동수술의 경우 제1 대구치보다는 제2구 대구치의 발치를 함이 더 좋다고 역설하였다.

Johann Adolph Goritz(? ~ ?)

Goritz는 1725년 제호(題號) 미상인 서적 1종을 간행했다. 그는 의치의 정착을 크게 반대하였다. 의치의 지대치들은 곧 발치하게 되는 까닭에 반대한 단는 주장이며, 부득이 의치가 필요하면 매우 연한 목재로 조제할 것을 권유하였다.

L.H.Runge(? ~ ?)

Runge는 1750년에 전두동(前頭洞) 및 상악동의 질환에 관한 저서를 내었다. 그는 상악동의 수술을 치조와(齒槽窩) 및 치조벽을 천공시키는 방법으로 했는데, 치조농양이 원인인 상악동의 이상은 항상 상악동 동내에 식육(息肉), 낭종, 육종, 암종, 외골종(外骨腫)을 병발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상악동염의 만기(晩期)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견치의 낭종을 보고하면서 치근에도 낭종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Jacob Chri8stian Schaffer(? ~ ?)

Schaffer이 치과의사이었는가 함은 미상이나, 목사이었던 점과 미술 분야에서도 활약한 점은 확실하다.

그는 「충치 속의 벌레」라는 책을 냈다. 1757년 그는 충(虫)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충(虫)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는 이미 그보다 2세기 이전에 거의 알려진 것이다. 아마도 당시까지도 그 존재를 신봉하는 치과의사가 많았던 것 같다.

Adam Anton Bruner(? ~ ?)

17세기 후반의 저명한 치과의사이다. 그는 「치과 의사에게 필요한 과학입문」을 1766년에, 또 「유치의 맹출」을 1771년에 저술도 했다. 물론 유치의 관한 기록에는 오류도 있으나 당시로서는 그래도 대단한

소동시대치음소

것이라 봐야 옳으리라. 그는 유치의 충수를 24개라 했고 그 치근도 없는데 간혹 그것이 오래 잔존될 때에는 점차 치근이 생긴다고도 하였다. 또한 그는 치열부정의 교정법으로 수지(手指)로써 압박시킬 것과 그것으로 여의치 못할 때에는 실(糸)이나 특별히 연구해가면서 교정하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post crown의 제작법도 기술했다. 당시에는 치과기공사가 이미 있었던 점을 본서는 알려준다.

C.A. Gravber(?~?)

이 사람이 「생치력」(生齒歷)을 고안한 치과 의사이다. 그 내용이나 형식이 바로 현재 이용되는 2개의 치궁을 횡렬(橫列)로 그린 것의 원형(原型)이다.

그는 또 소아치과 임상에서의 아동환자의 관리요령으로 의사가 거짓말이나 위협적인 말보다는 어디까지나 이해시키는 설명으로 치료를 납득시키라는 주장을 했다. 이찌기 이러한 탁견(卓見)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이름은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것이리라.

Bycjubg(?~?)

Bycjubg은 「발치술」을 1782년에 간행하였다. 그는 발치기구의 사용법과 환자의 자세 등을 자세히 기술했고, 이어 치통의 치료법으로 치아를 탈구시키는 방법(齒牙半脫臼法)을 옳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본서로 보아 당시까지도 독일에는 그러한 치통의 치료법이 있었던 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본서 그러한 방법은 아라비아의 Avicenna(980~1036)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Friedrich Hirsch(?~?)

Hirsch의 명성이 대대로 전해지는 사유로서 그의 무엇이 그러한 결과인가 함은 아직 필자는 모른다. 그런데 그는 1796년에 한 편의 논문을 썼다. 거기에서 치아이식술의 경우, 건강한 자연사의 사체로부터 이식할 치아는 구할 것이며, 결코 생체(生體)에서 발거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구강외과와 교정과 치아충전법에서 뛰어났었다.

J.E.Wichmann(?~?)

한국의 경우 독일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관심도 거의 없는 실정 이기에, Wichmann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되지 못하였으나, 그는 치아의 맹출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치은절개를 극력 반대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것은 위험성이 있을 뿐이라 주장해서 그 이후로 그러한 절개는 서서히 감소했다.

신일치과기공소

SIN IL
DENTAL
LABORATORY

대표 손영수

TEL. 756-2875 ~ 6

773-3949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83-1 (광풍빌딩 6층)

齒科界團體活動(8)(1940, 1941년)

辛 在 義*

1940年 12月14日 京城帝國大學 醫學部 病理學教室에서 裴珍極 醫學博士의 請求論文이 通過되어 韓國人 最初の 齒科醫師로서 醫學博士 學位 所持者가 되었다.

1934年 11月24日부터 同教室에서 研究한 이래 8년만의 쾌거였다.

◎主論文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 作用의 研究(四編)
第一編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 作用과 網
內系와의 關係

朝鮮醫學會雜誌 第二十九卷 第十一號(昭和十四年 十一月)

第二編 口腔粘膜에 미치는 光力學的 作用과 大
網膜과의 關係

同上第二十九卷 第十二號(昭和十四年十二月)

第三編 肝臟機能 障礙時에 보이는 体内性 光力
學的 特質과 網內系와의 關係(同上)

第四編 口腔粘膜 紫外線感受性과 網內系와의 關
係(同上)

參考論文 十篇이 있었다.

朝鮮聯合齒科醫師會는 從來 京城을 비롯해서 各
主要도시에 齒科醫師會의 加盟에 의하여 組織되어
있었다. 그런데 1940年 봄 제18회 總會에서 非常
時局을 맞이하여 會의 整備을 위하여 各道의 齒科
醫師會를 設立하기로 決議하였다.

이에 따라 齒科醫療報國의 運營과 圓滑을 기할수
있었다.

1940年 5月12日 咸南을 始作으로 해서 慶南, 忠

南, 慶北 全北 京畿의 順序로 各道를 單位로 하는
道齒科醫師會가 設立되었다. 平南齒科醫師會는 9月
29日에 平北齒科醫師會는 10月27日에, 全南齒科醫
師會는 10月2日에 江原道齒科醫師會는 11月23日
에 마지막으로 道齒科醫師會의 設立을 보게 되었다.

이에 齒科醫師는 1,000여명이 빠짐없이 포함하는
齒科醫師會가 되었다.

朝鮮聯合齒科醫師會 加盟會는 다음과 같았다.

朝鮮聯合齒科醫師會 會長 大沢義誠

京畿道齒科醫師會 會長 外圭三

慶南齒科醫師會 會長 高橋貞一

慶北 " " 穴山清作

忠南 " " 十川能一

忠北 " " 村瀬鬼四郎

全南 " " 池上民夫

全北 " " 渡辺 盛

江原道 " " 高塚秀也

黃海道 " " 沖本晴一

咸南 " " 德永庄作

咸北 " " 永富辰己

平南 " " 韓東燦

平北 " " 板東格郎

1941年 3月23日에는 朝鮮聯合齒科醫師會의 加
盟會長 會議를 開催하였다.

1. 朝聯改組와 定時 總會 開催하는 件各道齒科
醫師會 完成에 의하여 各 地方加盟會는 이 산하에
들어가게 되어 各地方 齒科醫師會는 自然退會가 되
어 이후로는 各道를 加盟會 單位로 하는 것에 協議

*신재의치과의원장, 大韓齒科醫史學會副會長

決定하였다.

2. 齒科醫療用 金 및 齒科資料에 關한 件
醫療用 金 保用 許可量 및 齒科資料에 關한 論議를 하였다.

3. 總督府內 職員共濟組合 齒科診療 契約에 關한 件

4. 紀元 二千六百年記念 朝鮮聯合齒科醫師會沿革史 編纂에 關한 件

5. 國防費獻金에 關한 件

1941年 5月25日에는 朝鮮聯合齒科醫師會의 總會가 時局에 따라 全國 13道齒科醫師會를 構成 單位로 하여 開催되었다.

그 案件은 다음과 같았다.

1. 國防獻金에 關한 報告

2. 齒科醫師會 發布 促進에 關한 件

3. 總督府 部內職員 共濟組合 診療契約에 關한 件

4. 朝鮮聯合齒科醫師會 會員 共濟制度 確立의 件

5. 朝鮮聯合齒科醫師會館設立의 件(醫藥 合同도 可)

6. 醫療用 金使用에 關한 件

7. 蟲齒豫方에 關한 件

8. 本會改組에 關한 件

9. 役員改選에 關한 件

役員改選에 關한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會 長 大沢義誠(再)

副會長 瓜田杏四郎(再)

副會長 趙東欽(新)

1941年 6月27日 午後6時에는 새로운 陣容이 決定되었다.

理事長 河內一完

庶務理事 福村武午代

口腔衛生理事 羽生博

資材理事 近藤 貢

會計理事 近藤 二男

保險理事 音田清治

調査理事 青沼一男

評議員은 各道齒科醫師會長(13人)

會務囑託 広瀬文質 咸錫泰 堀之内哲夫

1941年 9月23日에는 제19회 京城齒科醫學會 總會 및 學術講演會가 臨戰体制 아래에서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講堂에서 開催되어 26個의 演題가 아래와 같이 發表되었다.

1. 齒刷子ニ 關スル 研究(豫報)

失尾太郎 森藤陽三 高杉晴水

2. 珍奇ナル 形態 過剩齒に 就テ
高橋正二

3. 下顎第二 小臼齒 中央異常結節ニ就テ 高楠昭

4. 埋伏セル「オドントーム」症側ニ就テ 岡田肇

5. X線寫眞ニ據ル 治療困難ナル 根管ノ統計的觀察-堀 武 大金仁煥

6. 滿洲國哈爾濱附近ニ 發生セル 地方病性齒牙疾患(所謂班点狀 齒)ニ就テ

楠國雄 茂田貫一

7. 下顎第二大臼齒遠心面潛在齲蝕ニ就テノ觀察- 垣見庸三 矢崎政次 原田元信

8. 放線狀菌症性齒齲膿瘍ニ就テ- 舟生秀夫

9. 合成樹脂ノ齒科的應用ニ就テ- 宮津一

10. 化膿性 下顎骨炎ニ關スル觀察 其一 種々ナル 要因ニ就テ- 牧山正文

11. 化膿性 下顎骨炎ニ關スル觀察 其二 主トンテ 症狀ニ就テ- 牧山正文

12. 口腔疾患ト 血液病(特別講演) 加來素六

13. 洞口腔瘻ノ治驗例に 就テ- 大村秋夫

14. 先天梅毒患者ノ口腔所見ニ就テ- 亀原光平

15. 下顎管ノ發生ニ關スル補遺- 稲川英一

16. 口腔診査成績ノ機械的 統計法- 横田成三

17. 口蓋隆起ニ關スル綜合的 觀察- 桑山邦松

18. チフス様症狀キ示セル 急性下顎骨々膜炎の一例- 舟生秀夫

19. 朝鮮人ニ於ケル Torus mandibulaeニ就テ- 西山幸男

20. 一患者ニ於ケル諸種ノ疾患チ有スル 臨床例-

牧山正文, 松田春一

21. 電氣的 刺戟ニ對スル家兎齒髓知覺興舊ノ消長ヨリ 觀タルニ, 三促存 齒科用藥物ニ對スル齒髓ノ態度ニ就テー 茂田貫一

22. 銀合金ノ性質ノ使用上 注意スベキ諸點ニ就テー 圓城芳之助

23. 人工樹脂製橋正床ノ成績ー 横田成三

24. 齒齦ノ病理組織學的 研究補遺ー 西山幸男

25. 家兎耳殻血管像ノ藥理學的 研究豫報ー 矢尾太郎, 高杉晴水

26. 根管治療ノ最近ノ趨勢ニ就テ(特別講演)ー 松垣鹿舜三

한편 朝鮮齒科醫學會는 學術講演會를 1941年 9月21日 開催豫定이었다가 時局關係로 延期되었으며 府民館講堂에서 總會가 開催되어 役員을 改選하였다.

1941年末에는 大陸兵站基地로서 韓半島의 重大使命으로 官廳을 新体制로 변경됨에 따라 警務局아래의 衛生課에서 厚生局아래의 衛生課로 바뀌었다.

1941年初에는 漢城齒科醫師會 理事長으로써 趙東欽이 役員을 맡고 있었다.

1941年 1月18日 午後1時에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講堂에서는 京畿道 齒科醫師會 主催 講演會가 開催되었다.

1. 「パラチウム」, 合金의 使用禁に就て

2. 「バイオレジン」의 使用及び 데몬스트레이션 京城齒專校 醫博 弘田精一

1941年 2月11日 午後2時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講堂에서 京畿道 齒科醫師會와 京城齒科醫學會 京城支部 例會가 開催되었다.

1. 乳齒晩期殘存을伴へる齒牙位置置換例に就てー 廣江達雄

2. 最近に於ける齒科材料의 諸問題に就てー 松風憲二

3. 床用材「バイオレジン」に就て(講演及び操作實示)

1941年 3月30日 午後1時부터 체신회관에서 京畿道 齒科醫師會 第二回 總會가 열렸다.

1941年 봄에는 京城府 齒科醫師會 總會를 開催하고 役員을 重任시켰으며 1941年 5月3日 午後7時에는 피로연을 가졌다. 會長 齊藤鶴雄 副會長 西野鉄雄

1941年 5月18日에는 慶尙南道 齒科醫師會 第二回 總會가 열렸다.

1. 腐敗根管ニ對スル 還元銀療法ニ就テー 堀武

2. 拔牙ニ 就テニ, 三問題ー 牧山正文

3. 「松風バイオレジン」ニ就テ及 데몬스트레이션 松風會社 永井一夫

4. 朝鮮ニ於ケル齒科用品 配給統制ニ就テー 組合長 酒井好一

1941年 前半期에 忠淸北道齒科醫師會의 役員改選으로 谷川久作이 新任會長이 되었다.

1941年 10月5日에는 咸南道齒科醫師會가 元山에서 開催되었다.

1941年 11月2日에는 慶尙北道齒科醫師會가 主催하는 研究會가 大邱醫學專門學校講堂에서 開催되었다.

演題

1. 齒性化膿性 上顎骨 骨膜炎及び 齒性上顎洞炎に 繼發せる 眼球突出症의 一治驗例ー 福田 博

2. 我國輓近に 於け反 齒科學術界의 動きー 高達

3. 齒性루드ウィヒ氏「アンギーナ」に就てー 土井眞一

4. 外一

1941年度初에는 事變의 進展에 따라 金의 使用禁止에 따라 粗惡에 商品이 出現에 따라 齒科金屬 規格調査會가 設立되었다.

1941年 3月30日 午前 時를 기하여 朝鮮醫藥品等 現在 高調査規則을 朝鮮總督府會 第76号로 公布實施하였다.

1941年 4月16日에는 朝鮮에서 처음으로 齒科材料(石膏)의 公價가 朝鮮齒科用品商會組合으로부터

公價設定 신청에 따라 朝鮮總督府告示 第543号로 決定되었다.

1941年 5月13日에는 12品目이 추가되었다.

1940年 4月26日에는 朝鮮齒科用品商組合이 朝鮮에서 齒科用品의 원활한 配給에 공헌하기 위하여 設立되었다.

1941年 5月5日에는 京城호텔에서 全 組合員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총회가 열렸다.

당일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統制에 對한 物價에 대하여
2. 暴利取締令

1941年 10月6日 午前10時 경성호텔에서 1941年 3月10日 공포된 朝鮮商業組合令에 따라 配給통제와 물가조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朝鮮齒科用品商組合의 設立總會가 開催되었다.

1941年 5月1일부터 10일까지 健康週間을 맞이하여 라이온齒磨本舖에서는 和信百貨店에서 「齒와 健康展」을 개최하여 위생사상을 보급하는데 공헌하였다.

1941年 1月18日에는 朝鮮總督府에서 船員保險의 診療에 대한 齒科醫師 및 藥劑師를 指定하였다.

1941年 2月5日 午前10시부터 2시간에 걸쳐서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第四學年 生從에 대하여 國課試驗을 시행하였다.

1. 所謂 齒槽膿의 治療に 際し行子負擔輕減療法의 目的は何哉 該療法が 必要なる理由

2. 生活露出齒髓の 治療し 難き理由

1941年 3月21日, 22日 양일간에 걸쳐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入學試驗이 東京, 大阪, 京城에서 거행되었다.

1941年 3月24日 午前11時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第12回 卒業式이 거행되었는데 總53名中 朝鮮人이 23名이었다.

1941年度 春季朝鮮齒科醫師試驗問題는 아래와 같았다.

● 口腔外科

1. 濾胞性齒牙囊腫ノ症候及ビ病的變化
2. 上顎神經ノ伝達麻醉法
3. 齒牙外傷ノ症候及ビ併發症及ビ繼發症

● 病理學

1. 肉芽性炎
2. 齒根囊腫
3. ① 急性化膿性齒髓炎ノ症候
② 斑点狀齒

● 治術學

1. 齒牙強健法
胎生時, 初生時, 乳齒期
齒牙形成後ニ於ケル注意
2. 拔齒時ノ偶發症
3. 隣接面齧蝕ノ診斷

● 生理學

1. 人体ノ構成成分ニ就テ
2. 自律神經系ニ就テ
3. 小腸ノ運動ニ就テ

● 技工學

1. 筋形成法ニヨリ製作サレクル義齒ノ維持ノ機轉- 説明ヒヨ
2. 壓迫鐵造用埋没材所要ノ性質ニ就テ
3. 顎路ニ就テ説明セヨ

● 解剖學

1. 上顎犬齒(永久齒)ニ就テ記セ
2. 骨樣質ニ就テ記セ
3. 次ノ事項ヲ簡單ニ説明セヨ
① 咬頭
② 鼓索
③ 頰脂肪体

● 藥物學

1. 体内ニ吸收セラレタル藥物ノ運命ニ就テ
2. 血清ノ副作用ニ就テ記セ
3. 腐敗根管消毒藥トシテ「ホルマリン」ノ利害.

原 著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基礎調查 第3報

李 漢 水

VI. 韓國의 朝鮮時代 齒科醫學과 西域과의 連繫

여기서 조선시대라 함은 태조(太祖) 원년인 1392년부터 철종(哲宗) 14년인 1896년까지를 뜻한다. 이 시대를 다시 세분하지 않음은, 아직 이 분야 연구의 진척 상황을 볼 때에 별다른 뜻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태조 원년은 곧 명(明)의 태조 25년이고 1863년은 청(淸)의 목종(穆宗) 2년이다.

조선과 명과의 이 시기의 치과의학적 관계에 있어서는 사신들의 왕래에 따른 부수적인 서역산 의약의 전래가 있었고, 고려 중기부터 있게 된 서남 아시아 각국과의 의약적 교류가 이 시기에는 더욱 빈번해져서 그로 인한 서역의 의약도 간접적으로 더 많이 전래될 수 있었으며, 일본과의 교류도 차차 개선되므로 일본을 통해서도 그것은 역시 전래되었다. 한편 세종의 의약 자립정책으로 그후 부터는 서역의 본초는 그 일부가 국내에서도 재배를 보게 된 점 또한 주목할만 하다.

1. 明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조선의 건국과 함께 명(明, 1368~1662)과의 국교도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의약품의 교류 역시 증대되었다.

특히 세종(世宗)은 그의 3년인 1421년부터 번번이 당약(唐藥)과 향약(鄉藥)을 비교연구하기 위해 명으로 사절을 파견할 때에는 그들과 함께 의인(醫人)을 동행시켰다. 그러한 기록의 하나를 「조선조 실록」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은데, 때는 세종 5년인 1423년이다.

대호군(大護軍) 김을해(金乙亥), 사재부정(司宰副正) 노중례(路仲禮), 전 교수관(前 教授官) 박연(朴堧) 등이 명에 가서 질의하여 향약 62종 중 중국소산과 같지 않은 6종을 발견하여(이하 생략)……명하여 중국소산과 같지 않은 향약(이하 생략)은 금후 사용치 않게 하다.

조선은 건국초부터 성종(成宗) 때까지 해마다 수차 사절단 교환을 했다. 이 약 100년간에 조선에서는 본래부터가 산출되지 않은 본초로서 수입된 것이 약 39종 있는데, 김두중(金斗鐘)은 그의 저서「한국 의학 발달에 대한 구미 및 서남방 의학의 영향」에서 그 중의 서남 아시아산은 각종의 향약과, 용뇌(龍腦), 몰약(沒藥), 호초(胡椒), 서각(犀角) 등이라 하였다. 김두중이 서남 아시아산이라 함은 곧 서역산이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서역이란 이미 언급한대로 인도대륙을 포함시킨 광의(廣義)의 서역을 뜻한다.

조선에서는 세종 24년인 1442년에 조선으로 온 명의 사신인 탁량(卓良)이 그 전에 서번(西蕃)으로 갔을 때에 그 곳의 해수약(咳嗽藥)인 감로(甘露)을 복용하여 잘 치료된 사실을 들고, 서역에는 우수하고도 진기한 의약이 있음을 새로 인식하게도 되었다.

1445년에 편성되어 1477년에 간행된 「의방유취」(醫方類聚, 266卷 264冊)의 권 198의 제향문(諸香門)에는, 대식(大食)의 산출품으로 향약(香藥), 대석수(大石水·장미수)가 수록되어 있다.

서역의 본초는 연산군조(燕山君朝 1495~1506) 이후로도 활발히 전래(交역)되어 중종(中宗), 인종(仁宗), 명종(明宗),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1609~1623) 때까지 계속되다가 인조조(仁祖朝 1623~1649)에 이르러 그 전래가 일단 문헌의 기록상으로는 거의 두절되었다. 그 전래가 활발하던 시기는 연산군조부터 선조조(宣祖朝)의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까지 이다.

이제 연산군조와 선조조에 전래된 서역산 본초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서역산이라 함은 인도대륙을 포함시킨 것이다. 또 「조선조실록」에는 그 산지명까지는 명기된 것이 아니기에, 여기 다소의 착오도 있을 가능성도 부기해 둔다.

호초(胡椒)	심향(沈香)	소목(蘇木)
목향(木香)	정향(丁香)	단목(丹木)
포도(葡萄)	석류(石榴)	백단향(白檀香)
장미(薔薇)	용안(龍眼)	사탕(砂糖)
빈랑(檳榔)	호도(胡桃)	진유(眞油)
상아(象牙)	우각(牛角)	서각(犀角)
비상(砒礬)	대진주(大眞珠)	색향(色香)
향분(香粉)	반향(盤香)	레지(荔枝)
목통실(木通實)	외자(桅子)	목소(木梳)
궁각(弓角)	괘향(掛香)	

여기 부기할 것으로 문헌상 주목할 자료가 하나 있다. 조선과 명과의 교류는 아니나, 1653년인 명말(明末)에 화란인 하멜(Hendrick Hamel)등 일행 38명이 제주(濟州·吾叱島)에 표착하였다. 그들이 갖고 온 물품중에는 서역산 목향(木香) 94포(包)와 용뇌(龍腦) 4항(缸)이 있었다. 그들은 13년간 억류당한 끝에 일본 나가사키(長崎·郎可朔其)로 도주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당시 그들 일행은 극동 지리에 이미 정통했다.

또 하나 참고를 여기 부기할 점은,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 중국과의 교역(交通)은 명대(明代)에는 이미 거의 완전히 쇠퇴한 사실이다. 이 점은 이 분야 연구에서 유의할 일이라 생각한다.

2. 淸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여기서 청(淸)이라 함은 청의 성조(聖祖) 2년인 1663년부터 목종(穆宗) 2년인 1863년까지를

뜻한다.

「조선조실록」에 의하면, 조선과 청과의 의약적인 교류에 관한 기록은, 명대(明代)의 경우와는 달리 판이하게 적다. 따라서 서역산 본초의 전래를 명확히 할 자료는 많이 얻기가 역시 힘드나, 그러나 여기 주목할 몇몇 중요한 참고 기록이 있다.

하나는 1670년(顯宗 11년)에 동지사(冬至使)가 청으로부터 귀국하여 보고하길, 연경(燕京)에서 회회국(回回國)의 사신을 보았는데 그 안색은 몽고인과 같았고 그들 3명은 모두가 벽안(碧眼)이라 하였다.

곧 이 기록을 미루어 볼 때에, 당시인 17세기 후반에 있어서는 서역과 중국과의 공식적 국교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들 사절을 통해 청은 서역의 의약적 여러 지식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기록상으로는 비록 아직은 모르나 아마도 조선으로까지 소개되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한다.

또 하나, 1785년(正祖 9년) 삼라국(暹羅國)으로부터 청으로 보낸 여러 현상품명이 사은정사(謝恩正使)인 박명원(朴明源)의 보고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이다. 삼라국은 비록 서역은 아니라도 역시 여기서도 서역산 본초를 쉬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품목 전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상(公象)	모상(母象)	용연향(龍涎香 外·內)
금강찬(金剛鑽 外·內)	심향(沈香 外·內)	빙편(氷片 外·內)
서각(犀角 外·內)	공작미(孔雀尾 外·內)	취피(翠皮 外·內)
서양단(西洋氈 外·內)	서양홍포(西洋紅布 外·內)	상아(象牙 外·內)
장뇌(樟腦 外·內)	강진향(降眞香 外·內)	백교향(白膠香 外·內)
대풍자(大楓子 外·內)	오목(烏木 外·內)	백두구(白豆蔻 外·內)
필발(筆撥 外·內)	단향(檀香 外·內)	호밀피(胡蜜皮 外·內)
계피(桂皮 外·內)	등황(藤黃 外·內)	소목(蘇木 外·內)

위의 이러한 본초들중 서역산의 그것에 관한 여러 지식도 조선은 아마도 청을 통해서 간접 내지는 직접 얻었을 점은 쉬 짐작되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 1795년(正祖 19년) 동지사 서장관(冬至使 書狀官)인 심흥영(沈興永)은 귀국하여 보고하기를, 서양 하란(荷蘭)과 면전국(緬甸國)으로부터 각각 청으로 사신을 통해 보낸 여러 본초들의 품목이 있는데, 역시 이것을 통해서도 서역산 본초의 중국으로의 전래를 알 수가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본초들에 관한 지식은 조선으로도 간접 내지는 직접 전래되었으리라 미루어 알 수 있겠다. 이제 그 품목을 보면 이러하다.

단향(檀香)	두구(荳蔻)	정향(丁香)
단향유(檀香油)	정향유(丁香油)	등 20종

곧 청대(淸代)는 조선과 청과 일본 3개국의 이른바 삼각무역(三角貿易)이 활발하던 때이다.

한편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 중국의 교역(교통)은 명대(明代)에 거의 완전히 두절되었는데, 청대(淸代)에 이르러 다시 그것을 일시 복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은 이 분야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淸)의 전성기(前盛期 1662~1795)가 끝날 무렵인 고종(高宗·乾隆帝 1736~1795)때에 비단길을 통한 동서 교역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당시는 이미 해로를 통한 그것에 밀려 여의치 못했다. 18세기 중반의 일이다.

3. 日本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조선조실록」에서 조선과 일본과의 의약적 교류를 조사하면, 그 시초는 태조(太祖) 3년인 1394년부터이며, 그후 그 교류는 계속되면서 태종조(太宗朝 1401~1418)부터는 서서히 더 증대되어 세종조(世宗朝)에는 매우 활발해지고, 그것은 성종조(成宗朝 1470~1494)까지도 지속되다가, 연산군조(燕山君朝 1495~1506)부터 점차로 퇴조되면서 선조조(宣祖朝 1568~1608)까지 이른다. 명종(明宗 1546~1567) 2년인 1547년의 기록에는, 일본과의 공무(公貿·公式貿易)는 허락하는 것이 교린(交隣)의 후의이나, 그밖의 사무(私貿)는 일일이 그들의 청을 따를 것이 아니다. 일본국 왕사(往使)인 승(僧)이 봉영선(逢迎船)에 싣고온 호초, 단목의 절반은 그 공무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기록도 있게 된다.

이어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을 지나서 다시 양국의 의약적 교류는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1660~1674) 때에 일시 옛과 같은 활발함을 되찾을 듯하다 숙종(肅宗 1675~1720) 이후 점차 소원해진다.

번잡을 피하기 위해 「조선조실록」을 통해 일본을 거쳐 전래된 서역산이라 생각되는 본초의 품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일본의 사신이나 상인들이 이러한 서역산을 전래시킴은 곧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조선의 인삼과 송자(松子) 등을 위시하여 당시 그들보다 발달된 조선의 여러 의약 제제(製劑) 그리고 쌀, 서적, 화문석, 의료(衣料)를 수입키 위함이다.

정향(丁香)	정향피(丁香皮)	자단향(紫檀香)
피향(皮香)	심향(沈香)	기린향(麒麟香)
곽향(藿香)	백단향(白檀香)	남목향(南木香)
속향(束香)	룽향(隴香)	소합향(蘇合香)
소향(蔬香)	소향(蘇香)	소향유(蘇香油)
호초(胡椒)	소목(蘇木)	서각(犀角)
상아(象牙)	용뇌(龍腦)	단목(丹木)
사탕(砂糖)	기린혈(麒麟血)	기린교(麒麟膠)
빈랑(檳榔)	붕사(礪砂)	장뇌(樟腦·片腦)

4. 鄉藥으로서 栽培된 西域의 本草

조선시대 행정직제 안에 있는, 종약(種藥)을 연구하며 재배하고 다시 그것을 보급시킴을 목적으로 삼는 기관인 종약색(種藥色·種藥田)이 과연 어느 때에 창설되었는가는 미상이나, 이 기관명이 기록상 최초로 나오는 때는 1405년(太宗 5년)이다. 이때 육조(六曹)의 직무소관인 기관의 하나로서 종약색이 기재되었다. 종약이란 약초의 종자 혹은 그 묘목(苗木)을 뜻한다.

종약색(종약전)은 그후 1485년(成宗 16년)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1785년(正祖 9년)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그리고 1865년(高宗 2년)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까지도 계속惠民署(惠民署)의 소속기관으로 엄연히 존속되었다.

역대 조선조에서는 이 사실로써도 그 건국초부터 국내 국외의 여러 약재(本초)의 재배와 연구 및 그 보급에 크게 힘쓴 사실을 잘 알게 된다.

더우기 세종이 1431년(世宗 13년)에 「향약채집월령」(鄉藥採集月令)을 간행한 사실도 주목될만하다.

본서는 세종이 명(明)으로 사신을 파송할 경우 의사를 동행시킴으로써 향약과 당약의 비교연구를 시켜 그 차이 내지는 진부를 조사한 내용들을 참고삼아 향약의 총 160종을 수록하며 거기에는 그 설명과 더불어 향명(鄉名)까지도 부기게 한 책이다. 현재까지 아직 그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1433년에 간행된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85卷) 권 79의 향약 본초 각론에는 서역이 그 원산지인 다음의 10종이 기재되었다.

회향(茴鄉·懷鄉子)

안식향(安息鄉·安息鄉樹出 波斯國)

포도(葡萄)

안석류(安石榴)

호도(胡桃)

호마(胡麻)

호름(胡荽)

참조(甜瓜·眞瓜·참외)

호조엽(胡瓜葉)

호초(胡葱)

호조(胡瓜)의 원산지가 서역임은 「본초강목」(本草綱目, 52卷, 李時珍, 明, 1596)으로 알 수 있다. 장건(張健)이 서역으로부터 가져왔다. 황조(黃瓜)와 호조는 같은 것이다. 그런데 「향약집성방」보다 약 180년 뒤에 나온 「동의보감」의 권 20에는 서조(西瓜)가 수박, 참조(甜瓜)는 참외, 호조(胡瓜)가 외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조선조실록」에 따르면, 1429년(世宗 10년)에는 안석류(安石榴·石榴)를 다른 과목(果木)들과 함께 심는 일을 세종이 허가한 기록이 있고, 또 1482년(成宗 13년)부터는 호초(胡椒)를 국내에서 재배코자 처음으로 그 씨앗을 일본국사에게 부탁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기사는 계속 1483년에도 있다. 이때는 호초의 씨앗을 구하기 위해 명사(明使)에게 부탁한 기록이다. 1485년, 86년에도 계속 일본측에 그것을 부탁한 기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1494년(成宗 25년)에는 서역산 목향묘(木香苗)가 등묘(藤苗)와 야자묘(椰子苗)와 함께 유구중산부주사(琉球中山府主使)인 승려 천장(天章)이 조선으로 왔을 적의 그들 선물중에 있던 기록이 나온다.

향약에 관한 연구는 고려시대 중기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하여 성종조(成宗朝 1470~1494)때에 하나의 절정기를 이루며, 연산군조(燕山君朝) 이후로 쇠퇴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는 비록 그 이름은 중국의 본초명(本草名)과 동일한 한국산이라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동명이종(同名異種)인 경우도 있어 그 약효가 아주 달랐고, 또 동종(同種)이라 하더라도 중국과는 그 풍토가 매우 달라 전혀 다른 약효를 보이는 수도 있었으며, 그 재배법이나 채취법 채취후의 관리법 등의 차이 내지 미숙으로 판이한 약효를 보인 점, 그리고 다시 거기에 당시 명(明)의 의학 융성으로 그 영향을 받아 그만 향약의 재배와 연구가 압도를 당해 쇠퇴한 점들이다.

5. 韓國의 朝鮮時代의 西洋 齒科醫學 暫見

조선시대의 서역 치과의약의 전래를 연구함에 있어서, 바로 이 당시의 서양에 있어서의 치과의학의 개요를 살핀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저자는 간략하게나마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서양의 그것을 고찰코자 한다.

프랑스의 Guy de Chauliac(1300~1368)의 저서 Chirurgia magna(外科學書)는 14세기 중반에 집필된 것인데, 본서는 16세기까지도 당시의 대표적 의서로서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히부리등의 말로들 번역되어 각 의과대학의 교재로 사용된 책이다.

본서에는 치과의학 부문에 관해 상당히 자세히 기술되었다. 그런데 당시까지의 치과의학은 아라비아 치과의학과 비교해서 아직 거의 새로 발달된 점이 없다.

치아질환 치료법은 크게 2가지로 구별했다. 일반적 요법과 특수요법이다. 전자는 구강의 청소와 음식물의 선택 내지 주의사항이며, 후자는 하제(下劑·泄瀉劑)를 이용하면서 구순 혹은 혀의 혈관에 대해서는 자락법(刺絡法)을 택하든가 흡각(吸角)의 사용 내지는 마찰로 이른바 유도법(誘導法)을 가하며, 두통의 진정이나 염증성 체액의 소실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향(乳香) 등을 내복하는 것이다. 구강 함수제에는 밀(蜜), 소염(燒鹽), 초(醋)를 쓰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것으로 치아를 닦는 일도 좋은 방법으로 알았다.

치아우식증 치료에는 알코올, 박하, 호초, 살비아 등 포도주성(葡萄酒性) 당약으로 치아를 세척하고, 이어 유향, 오배자, 유황, 장뇌(樟腦) 등의 혼화물로 우와를 충전하였다. 치충(齒虫)의 퇴치제(退治劑)로는 구(韭) 또는 총(葱)을 응용했다.

흡입마취제로는 아편 등이 응용되며 마취후의 각성제로는 회향(茴香) 등이 응용되었다.

17세기 오스트리아의 Johann Stephan Strobelberger(17세기 전반)은 1630년에 치아와 통풍(通風)의 관계를 쓴 책을 냈다. 이것은 원저로서의 가치보다는 당시까지의 치통의 지식드라를 모두 수록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명하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치통 치료에는 유산, 초 등이 응용되었다. 연초(煙草) 역시 응용되었다. 연초는 타액과 비강(鼻腔) 점막으로부터의 분피물의 배출을 촉진시킴으로 치통을 야기시킨 병적 체액의 배제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진통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라 했다.

18세기는 프랑스 치과의학이 가장 발달되어, 그 대표적 의사로서 Pierre Fauchard(1678~1761)가 있다. 그의 저서 *Le chirurgien dentiste, ou traite des dents*(外科齒科醫 2권)에는 치아우식증의 치료제로서 계피유(桂皮油), 정향유(丁香油), 유산(硫酸), 호초, 생강, 소금, 초, 육두구(肉豆蔻), 아편, 아위(阿魏) 등이 기재되었다.

6. 「東醫寶鑑」과 西域과의 醫藥의 連繫

조선의 치과의학과 일반 의학을 두루 대표하는 「동의보감」(東醫寶鑑, 25권 25책, 許浚, 1610년 성립, 1613년 印行)에서도, 서역의 의약과 깊이 연계된 부분을 쉬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우선 저자인 허준(許浚)이 본서의 권 1의, 내경편(內景篇) 제 1. 신형(身形)의 제 3), 사대성형(四大成形) 조목에서 논술한 의설(醫說)로써 명백하다.

그가 준봉한 의설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저자가 석씨론(釋氏論)을 인용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지·수·화 풍(地·水·火·風)이 서로 화합해서 사람의 근골(筋骨)과 기육(肌肉)을 만든다고 했으니, 근골과 기육은 지(地)에 속하며, 정혈(精血)과 진액(津液)은 수(水)에 속하고, 호흡과 온단은 화(火)에 속하며, 영명(靈明)과 활동은 풍(風)에 속하는 법이다. 그러니 풍(風)이 그치면 기(氣)가 절(絶)하고, 화(火)가 멸(滅)하면 신체가 한냉하며, 수(水)가 갈(渴)하면 혈(血)이 마르고, 토(土)가 산(散)하면 신형(身形)이 분열(分裂)된다.

이러한 의설을 허준(許浚)은 「석씨」(釋氏)라고만 약기(略記·略稱)한 문헌에서 인용한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그 인용문헌이 과연 어떠한 문헌인가함은 아직 확실치 않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아직까지는 언급된 연구가 없다. 저자는 아마도 이것은 허준(許浚)의 스승이던 유의태(柳義泰)가 준봉한 의설로서 여기 기재된 “석씨(釋氏)”라는 말의 뜻으로 미루어, 인도의 불교의학이 아닐까 추찰한다.

「동의보감」의 이 의설은 중국 의학의 전통적인 이른바 오행설(五行說)과는 판이하다. 곧, 「내경태소」(內經太素)의 주장인, 인체를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다섯개 요소의 집합체로 본 오행설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도리어 이 의설은 고대 인도의 사요소설(四要素說, 地·水·火·風)이나, 고대 희랍의 Empedokles(전 483~435?), Hippokrates(전 475~전 380?)의 사원소설(四原素說, 火·空·氣·水·土)과 거의 일치되는 의설이라 고찰해야 보다 옳을 줄로 안다.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의 내경편 제4신(神)의 4), 인체의 각종신(各種神)의 명칭 조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 역시 저자는 이것이 매우 Babylonia적(的)인 점이 아닌가 한다.

……(전략). 인체의 백절(白節)에는 모든 신(神)이 있고, 신의 이름이 가장 많아서 매거하기가 어려운데 대체로 신(身)에는 3부가 있으니, 상부(上部)의 팔경(八景)은 발신(髮神), 흉신(胸神), 안신(眼神), 이신(耳神), 구신(口神), 설신(舌神), 치신(齒神)이요, 중부(中部)의 팔경은……(생략).

인체의 백절(白節)에 각기 있는 여러 신(神) 중에서 상위(上位)의 신으로서 간신(肝神)을 인식한 점 역시 Babylonia의 경우와 동일하다. 간신(肝神)의 이름은 용연(龍烟)이며 자(字)는 함명(含明)이고 그 형장(形長)은 7치(7寸)에 청금의(淸錦衣)와 봉옥령(鳳玉鈴)으로 차렸고 그 얼굴은 마치 바가지가 매달린 모양과도 같고 그 얼굴빛은 청자색(靑紫色)이라 했다. 물론 인체의 최고신(最高神)은 역시 심군(心君)이다.

따라서 더욱 이러한 점에서도 저자는 「동의보감」을 통해서, 물론 아직은 비록 그 연구의 미흡된 점이 있기는 하나, 16세기말에는 서역을 통해서 동서 의학을 포함한 치과의학의 교류가 많이 그리고 대단히 깊이 이루어졌음을 잘 인지케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이제 다시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 전체에 수록된 서역산 본초(약재·의약품)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수록되었다. 총 44종에 달한다.

곡부(穀部)

호마(胡麻·거른참깨)

호마유(胡麻油)

주(酒·술)

금부(禽部)

호연란(胡燕卵)

호연육(胡燕肉)

월연시(越燕屎)

수부(獸部)

상아(象牙)

서각(犀角·물소뿔)

과부(果部)

포도(葡萄)

사탕(砂糖)

석류(石榴)

호도(胡桃)

야자(椰子)

채부(菜部)

서과(西瓜·수박)

침과(甜瓜)

호과(胡瓜·물외)

호수(胡荽)

목숙(苜蓿·거여목)

초부(草部)

목향(木香)

회향(茴香)

아위(阿魏)

목부(木部)

계심(桂心)

계지(桂枝)

육계(肉桂)

정향(丁香)

심향(沈香)

유향(乳香)

백교향(白膠香)

곽향(藿香)

백단향(白檀香)

자단향(紫檀香)

강진향(降眞香)

소합향(蘇合香)

빈랑(檳榔)
향유(香薷)
소방목(蘇方木)
석부(石部)
붕사(硼砂)

용뇌향(龍腦香)
안식향(安息香)
호초(胡椒)

몰약(沒藥)
천축향(天竺香)
곽향엽(藿香葉)

이제 「동의보감」의 외형편(外形篇) 권 2의 구설문(口舌門)과 아치문(牙齒門)에서 취급된 서역산 본초(약재)들을 보면 이러하다. 총 21종에 이른다.

유향(乳香)
향유(香油)
곽향(藿香)
호초(胡椒)
계지(桂枝)
서각(犀角)
빈랑(檳榔)

몰약(沒藥)
목향(木香)
곽향엽(藿香葉)
호황련(胡黃連)
첨과(甜瓜)
서각방(犀角鎊)
붕사(硼砂)

정향(丁香)
회향(茴香)
백단향(白檀香)
계피(桂皮)
서과(西瓜)
용뇌(龍腦)
편뇌(片腦·樟腦)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한국에서는 16세기말에는 이러한 서역산 본초의 약효와 용법의 지식은 물론 널리 그것이 실용화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치과임상에서 서역산 본초가 사용된 실례를 몇몇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치은의 종창과 치아의 동요가 있을 경우, 그 치료 처방에는 곽향(藿香)이 들어갔다.
- 2) 육식을 즐기며 구취가 심하면서 충치가 있어 곧 치아의 탈락이 있을듯 싶을 경우는, 그 처방에 곽향과 목향이 각각 들어갔다.
- 3) 풍(風)과 한(寒) 그리고 습(濕)이 뇌(腦)를 범하여 치은의 동통과 치아동요 및 치근노출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에 계지(桂枝)가 들어갔다.
- 4) 아치통(牙齒痛)의 경우는 반드시 호초(胡椒)를 써야만 그 치아속의 부열(浮熱)을 발산시켜서 진정되는 법이라 인식했고, 그 처방에는 유향(乳香), 장뇌(樟腦·片腦), 향유(香油), 내지는 몰약(沒藥)이 들어갔다.
- 5) 충아통(虫牙痛)의 경우도 역시 유향이 그 처방에 들어갔다.
- 6) 대한(大寒)이 뇌를 범해 두통과 치통이 심할 때에는 계지(桂枝)가 그 처방에 들어갔다.
- 7) 위열(胃熱)과 구취(口臭)가 있을 경우에는 백단향(白檀香), 또는 서각(犀角)이나 아교(阿膠)가 처방에 들어갔다.
- 8) 구설생창(口舌生瘡)이면서 구취가 심할 때에는 붕사(硼砂)가 그 처방에 들어갔다.
- 9) 심화(心火)로써 혀에 창(瘡)이 생기든가 혀의 출혈 혹은 귀열(龜裂)이 생기든가 혀가 굳었을

경우는 서각(犀角)이 그 처방에 들어갔다.

10) 중설(重舌·ranula)의 치료 처방에는 붕사(硼砂)와 함께 용뇌(龍腦)도 들어갔다.

11) 구창(口瘡)에는 편뇌(片腦·樟腦)가 그 치료 처방에 들어갔다.

12) 백구창(白口瘡)에는 유향과 몰약이 각각 그 치료 처방에 들어갔다.

13) 단순한 구취의 제거에는 회향(茴香) 혹은 향유(香薷)를 생식하든가 이것을 국으로 끓여 먹었다.

금후의 참고로 여기 저자가 추가시킬 것이 하나있다. 그것은 갖가지 처방에 있어서 즐겨 사용한 수량(數量) 단위인 수자(數字)의 문제이다. 저자는 그 수자에서 서역의 경우와 유사한 점을 혹시나 발견할 수가 있을까 하여 조사 연구하였으나 그러한 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동의보감」의 구설문(口舌門)과 아치문(牙齒門)의 여러 처방에 있어서 자주 사용된 숫자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1·2·3·5·7이며, 역시 4·9등은 적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수, 이를테면 0.5 혹은 1.5와 같은 것도 비교적 드물다. 또 10 이상의 숫자인 11·12……등도 드물다.

7. 西洋 醫學과의 初期 接觸

여기서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부터 보다 빈번하게 된 중국을 통한 조선과 서(西) 유럽과의 의약적 접촉을 고찰함은, 서구의 그것이 서역의 의약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발달된 까닭이다.

그러면 양자의 발달상의 상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나, 이 점에 관해서는 아직 저자로서 깊이 언급할 수 있는 연구나 그 자료들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서역의 지리적 위치와 그들 고대 언어의 해독과 그들의 지속적 문화적 발달 수준 따위가 복합적으로 그 연구상의 애로가 된 탓이다.

임진왜란을 하나의 계기로 삼게 될 조선의 치과의학과 서역과의 관계도 당연히 여기서 고찰되어야 될 과제이나, 아직까지 저자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구하지 못한 점을 여기서 확실히 한다. 금후의 연구 과제의 하나이다.

17세기 전반인 인조(仁祖) 때부터 서서히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조선의 의약은, 다시 17세기 후반부터는 중국의 명말(明末)·청초(淸初)이던 당시 중국으로 와 있던 천주교 신부들의 한역(韓譯) 의서를 통해 서양의 의학적 지식과 접촉하게 되어 그 고유의 전통적 의학 지견은 점차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새로운 지식이 그대를 곧 실체적인 진료까지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다만 당시의 진보적이던 소수 인사들의 관심만을 끄는 정도로 멈추었다.

당시 조선에 알려진 서양의설(西洋醫說)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主制群徵」의 傳來

「주제군징」은 아마도 인조(仁祖)의 장자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귀국할 당시에 전래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곧, 그 연대는 인조 23년인 1645년, 청(淸)의 순치(順治) 2년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Galenos(Galen)의 해부학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는 동물의 해부와 인체 골격의 관찰을 통해, 골(骨)은 그 내부에 수관(髓管)을 갖는 장골(長骨)과 그것을 갖지 않는 평골(平骨)로 구분하였고, 또 두개골 형성에 관해서도 자세할 인식하여 치아는 골의 일종이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 근육, 혈관계 및 노신경의 분포 상태에 관해서도 세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생리학 분야에서는 생명 유지의 근원은 호흡을 통해서 흡입되는 영기(靈氣)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그 영기는 기관(氣管)을 통해서 폐에 이르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 좌실(左室)에 도달하여 혈액과 혼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체의 영양은 장으로부터 흡수되어, 간에 이르러 혈액이 되고, 특별한 하나의 활소(活素)인 자연영기(自然靈氣)가 다시 새로 거기에 부여되어 인체의 성장과 영양으로서 힘을 얻는 것이라 하면서, 나쁜 혈액은 간장에서 폐를 가는 폐동맥에 의해 정화되고, 그것은 호흡으로 신체외부를 방출된다. 정맥관 속의 혈액은 부단히 정화되면서 그 영양 공급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맥관을 순환한다. 정맥혈(靜脈血)의 극소량은 심장의 근성중격(筋性中隔)의 미세한 관을 통해서 심장의 좌실(左室)로 도달하여 거기서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운반된 공기와 혼합된다. 그 혼합을 통해서 동맥혈은 생성되며, 생명 유지의 근원물이 되기 위해 생명영기(生命靈氣)도 함께 부여된다. 생명영기가 부여된 혈액은 동맥 속을 돌면서 여러 장기에 기능을 부여한다. 그 혈액이 뇌에 이르면 거기서는 동물영기(動物靈氣)가 또 부여된다. 그 동물영기는 뇌로부터 신경에 전달되어 운동 혹은 감각 등의 기능을 발휘케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혈액과 영기를 운반하는 혈행(血行)은, 조류(潮流)의 간만(干滿)에 따라 어떤 힘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또 척수색(脊髓索)의 손상도 생명 유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실히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서양 의설은 당시 조선의 조야 인사들에게는 충격적이며 큰 호기심을 끄는 데 충분하였을 것이다.

2) 「星湖僊說」의 西洋醫說과 本草論

「성호사설」(星湖叢說) 권 5에는 서국의(西國醫)와 본초(本草)라는 두 제목의 기록이 있다. 본서의 저자는 이익(李瀾 1682~1764)이다. 아마도 이 기록은 조선에는 최초로 소개된 서양 의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는 이 기록에서, 서양의 의설은 중국 의학에 비해서 더 자세하기 때문에 쉽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또 탕약망(湯若望)의 저서를 보면 중국인의 본초 연구보다는 서양인들의 것이 더 우수하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익의 이 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글 용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세세한 점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면도 없지 아니하나, 전술한 「주제군정」이라 한역(漢譯) 소개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 내지는 이해의 잘못 같은 점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점도 있다.

김두중(金斗鐘)은 「한국의학사」에서, 이익의 기록은 우선자세히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생리원칙(生理原則), 혈액, 호흡, 뇌척수, 신경 등 5개항으로 그 나름대로 요약하였는데,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Galenos의 의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 부분의 정확한 연구는 「주제군정」의 원본이 자료로서 입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김두종이 요약한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일 아니라, 이익의 원문에 대해서 다소의 의문을 갖는다. 즉, 이익으로서도 Galenos의 생소한 의설은 당시에는 아마도 해득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西國醫人 鄒若望. 天啓間至中國. 其主制群微云. 有骨有肉形備矣. 然必須本洗爲生. 血爲養氣爲動覺.……(中略). 今論血所由來. 必 食化. 食先歷齒刀. 次歷胃釜.……(省略).

鄒若望者. 西洋人也. 天啓間. 至中國善醫. 究中國本草八千餘種. 惜未翻譯云. 其人長於考至. 凡物理之說. 皆非華人所及. 此必有奇方異材. 大益於人生. 華人尊信猶未至. 不能傳後而聞焉. 可異.

3) 「荷蘭陀小兒方」「西洋收露方」의 認知

「열하일기」(熱河日氣 朴趾源, 1737~1805)의 권 38의 금료소초(金寥小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내가 열하(熱河)에 있을 적에 대리사경(大理寺卿)인 윤가전(尹嘉銓)에게, 요즘 의서들 중에서 새 경험방으로서 내가 사서 가져 갈 만한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윤경(尹卿)은 근세의 일본과 판각인 「소아경험방」(小兒經驗方)이 가장 좋은 의서인데, 그 책은 서남 해양 중에 있는 하란원(荷蘭院·네덜란드의 교회)에서 냈다고 합니다. 또 서양의 「수로방」(收露方)이란 의서가 매우 정미로우나, 그러나 시험해 보니까 그다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곳의 기후와 풍토가 다르며, 또 옛적과 지금 사람들의 기품이나 성질이 다른 탓입니다.……(중략). 나는 연경(燕京)으로 돌아가 프랑스의 「小兒方」과 서양의 「收露方」을 구해 봤지만 그러나 모두 구하지를 못하고……(생략).(余既還燕, 求荷蘭小兒方, 及西洋收露方, 俱不得……)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새로운 서양의 의서가 중국에는 이미 많이 있음을 조선의 여러 인사들도 알고,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리라 짐작된다.

4) 「書永編 上下 2卷」은 실학자 정동유(鄭東愈 1744~1808)의 저서로서 순조(純祖) 5년인 1805년에 간행되었다. 본서의 사본은 4권 4책으로 전해진다.

본서에서 저자는 주장하기를, “동양에는 일찍부터 오행설이 의학 이론에 도입되어 왔다. 그런데 인체의 오장과 오행을 서로 배속시킴에 있어,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르다. 서로 그 주장들이 다른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동양 의학의 경우는 그 오행의 생극(生克)에 따라 질병과 약성(藥性) 등을 논하는 것이라, 만일 그 배속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치료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마련 아닌가. 「소문」(素問)은 심(心)이 화(火)라 하고, 양웅(楊雄)은 심(心)이 토(土)라 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라는 뜻의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그러한 동양 의학의 오행설은 치료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실학자의 놀라운 지적과 주장이다.

「의령」(醫零 1卷)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서로 정조(正祖) 22년인 1798년에 간행되

었다.

본서에서 자자는 고금의 동양 의인은 선배들의 주장에서 그 그릇됨을 밝히려 들지는 않고, 오직 전래되는 의설만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라 했다. 그리고 근세 물리학적인 이론을 전하면서 그의 근시론(近視論)에서 동양 의학에서 근시는 양(陽)이 부족하며, 수(水)가 없는 까닭이라 하지만, 그런 것일 아니며, 동구가 돌(突)하면 시심(視心)이 근(近)에 회(會)하는 까닭에 그만 근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안경이 돌(突)하면, 가까운 것은 볼 수 있어도 좀 멀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도 했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동양 의학의 음양설과 오행설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정동유와 정약용 등 실학파의 이러한 일련의 증장은, 서양 의학에 대한 당시의 국내인의 관심을 크게 모았으리라 생각된다.

5) 「種痘奇法」의 傳來

1796년(正祖 20년, 淸, 嘉慶 元年)에 영국의 Edward Jenner에 의해서 발견된 「우두종법」(牛痘種法)이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전래된 시기는 미상이다. 그런데 문헌으로서 「종두기법」(種痘奇法)이 기록된 것은 정약용(丁若鏞)의 「마과회통」(麻科會通, 6卷, 3冊)의 권말에 부기된 것이 그 최초이다. 「마과회통」은 정조(正祖) 22년인 1798년에 간행되었다.

저자는 중국에서 1828년에 간행된 한역(漢譯) 「종두기법」의 중간본(重刊本)인 「신증종두기법상실」(新證種痘奇法詳悉)을 소개한 것이다.

김두중(金斗鐘)은 「한국의학사」에서, 정약용이 본법을 실용한 때는, 대략 헌종(憲宗) 원년 말이라 추정하였다.

정약용이 실시한 종두법은, 당시의 국내 의사들에게 서양 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모았을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李圭景, 60卷, 寫本)의 권 12의 종두변증설(種痘辨證說)에도 정약용이 1835년인 헌종 원년에 종두법(種痘法)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某方茶山秘不示人, 或有見者相傳, 如此郎牛乳種痘方取牝牛乳……(省略).

6) 人體內外總象辨證說

이규경(李圭景)은 그의 저서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 19에서 「인체내외총상변증설」(人體內外總象辨證說)을 쓰고 있다. 이것은 전기한 「주제군정」의 해부 및 생리 등 새로운 지식을 소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 장기의 생리작용을 주로 설명한 것이고, 각 장기의 위치나 형태 또는 조직에 관한 지식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개로 당시의 조선 국내 인사들에게는 서양 의학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을 점은 확실하다.

凡爲格物窮理之學者 更不知人形內外景藏府 骨肉之爲如何……(省略).

7. 漢譯된 西洋 醫書의 輸入

19세기 당시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서양 문명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한 학자들 중에 최한기(崔漢綺, 1803~1879)가 있다. 그는 서양 의학에도 관심이 있어 한역 의서들을 수집하였다. 그가 생전에 수집했던 「명남루문집」(明南樓文集)은 1천 권에 달한다. 그 중에는 다음의 의서 5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 5종의 한역(漢譯) 의서는 청(淸)의 문종(文宗) 원년인 함풍(咸豐) 원년부터 8년까지(1851~1858), 영국인 의사 Habson(漢名, 合信)이 상해(上海)의 인제의관(仁濟醫館)을 통해서 간행한 것이다.

全體新論	1851년 간행
西醫略論	1856년 간행
內科新論	1858년 간행
婦嬰新說	1858년 간행
博物新編	1858년 간행

「전체신론」은 인체의 모든 골격 등, 총 271개에 달하는 그림을 곁들인 인체 해부 서적이다. 「서약론」은 상·중·하 3권 1책으로 외과 의서이다. 「내과신론」은 내과 전문의서이며, 「부영신설」은 부인과와 소아과의 전문의서이고, 「박물신편」은 물리와 화학 및 생리학 관계의 서적이다.

이러한 의서들이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수입되었는가는 미상이나, 당시의 인사들에게 서양 의학에 흥미를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8) 天主教의 宣敎 醫療事業

천주교의 초기 선교사업을 통해 조선에는 새로운 서양 의학이 소개되었으리라 하는 추찰은 결코 무리는 아니라 생각된다. 당시의 천주교 신부들은 교리서만이 아니라, 각종 새 서양 문명의 이기들도 함께 소개한 사실은 확실한 여러 근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의학 부문에서의 그들의 활동 내지 업적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런대로 이 분야에 관한 자료 정리는,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84년에 간행한 「한국교회사 논문집」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교회사 논문집」 I 에 따르면, 한국 카톨릭교 초기 신자들의 12.20%는 의원(醫員)이다.

초창기의 최량업(崔良業) 신부가 선교본부로 보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조선의 풍토는 건강에 꽤 좋으나, 물은 어디에 가나 맛이 없고, 또 여러 지방에서는 물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중략). 조선 사람들은 이 병을 수토병(水土病), 즉 물과 흙에서 오는 병이라 부른다. 꽤 넓은 몇 줄기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꼬불꼬불한 좁은 길로 되어 있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발에 밟히는 것이라고는 오물뿐이다……(중략). 비위생적인 물을 소독할 약을 청하고 싶습니다. 지식이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한 약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일러 줄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Michel Alexandre Petitnicolas 신부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준 약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초기의 선교신부들의 의료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은 점차 교회 당국의 사업이 되었다. 즉, Sim'eon Berneux 신부는 1858년에 주요 도시마다 시약소(施藥所)를 설치하고, 그 이전부터 카톨릭교회에서 시작했던 성영회(聖嬰會) 사업의 하나로 의사들에 의한 진료는 아니었더라도 매우 활발한 의료사업을 전개했다.

전기한 「한국교회사 논문집」 II에 따르면, 어느 천주교 교인 의사가 어느날 Daveluy 주교에게 말하기를, 그가 몇 주일 전에 약을 준 어린아이 72명 가운데, 2명만이 죽음을 모면하였다고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제3대 조선교구장 Ferr'eol 주교는 결석(結石)으로 오랫동안 빈사 상태에 이르렀으나, 한의사(漢醫師)에 의해 불과 몇 시간만에 낫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의 카톨릭 선교와 관련되었던 약국으로서는 중인(中人) 출신이던 최필제의 약국을 들 수 있다. 최필제는 서울 네거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그곳을 교인들의 비밀 집회소 혹은 침례 장소로 이용하였다가, 1801년의 천주교 박해 때에 순교하였다.

이상으로 고찰할 때에, 천주교의 초창기 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의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물론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조선에서는 천주교 교인들이 일찍부터 서양 의학에 접촉한 사실과, 또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먼저 서구적 내용의 의료사업을 시작한 점만은 아마도 틀림 없는 일이라 일단 생각된다.(다음호에 계속)

신간안내 / 李 漢 水 著

韓國齒學史

이 책을 내면서

저자는 먼저 이 책을 우리 나라 치과의학 발달을 위해 크게 헌신하시고 이제는 그 존함마저 잊혀진 우리 모든 선배님들 영전에 바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이 그 여러 선배님들의 공덕을 가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품어 본다.

이 책은 저자가 이 강산의 치과의사로 서 하나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주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하는 뜻에서 썼다.

본서의 내용은 196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위시한 연세대학교·경희대학교·조선대학교·연세대학교 의기술수련원 치과위생과 등에서 치과의사학 강좌로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본서의 구체적인 집필의 착수는 각 대학에서 저자가 담당했던 강의 내용을 일단 1972년부터 서서히 정리하면서부터이다. 1983년에는 당시까지 일단 중단되었던 대한치과의사학회 학회지의 발행이 속간됨에 따라 저자는 그때부터 1987년까지 만 5년간을 전후 5회에 걸쳐 정리되었던 논문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 일단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재차 정리하며 공인된 학회를 통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거쳐 이제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

요즘 치과의사학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점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학이 치과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분과로서 깊이 인식되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줄 안다.

치과의사학 강좌는 현재 국내의 모든 치과교육기관에 있다.

韓國齒學史

李 漢 水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 教室 史 □

가톨릭大學 醫學部 齒科學教室 略史

奇昌德* 金光鉉** 崔牧均***

* 가톨릭 醫科大學 外未教授, 奇昌德 齒科醫院長, P.F.A. 韓國會 前 會長

** 가톨릭 醫科大學 外未教授, 中央病院 齒科 科長, 齒學同人會 會長

*** 가톨릭 醫科大學 教授, 大韓齒科移植學會 會長, 聖母病院 齒科科長

1. 沿 革

聖母病院 개원(1935년 5월 4일) 이후 초기에는 齒科의 독립 시설이 없었고 韓國動亂이 끝난후 聖神大學 醫學部の 설립이 인가(1954년 4월 8일)되고 醫學部の 附屬病院制度가 시작되면서 明洞의 聖母病院은 第一附屬病院으로 하고 中林洞의 聖요셉慈善病院은 第二附屬病院으로 지정(1955년 10월)되었다. 이 무렵 附屬病院 聖母病院에는 個人賃貸로 1955년 6월부터 梁惠敦(1941년 京齒專 卒業)이 齒科診療室을 시설하고 1957년 3월까지 진료하였다. 1958년 3월 聖母病院은 綜合病院으로 승격되고 1959년 3월 第二附屬病院인 聖요셉慈善病院은 聖家會 修女들로 부터 聖바오로會修女들이 인계받고 1959년 4월 齒科醫師 黃洞瀾(大阪齒大 출신)를 囑託으로 齒科를 개설하였으나 1961년 聖母病院 附設 極貧者를 위한 實費病院으로 전환함에 따라 齒科는 제외되었다. 1959년에 第一附屬病院 聖母病院에는 제4대 病院長 梁基涉神父의 후원금(梁神父의 영명 축일 축의금)을 기금으로 하여 治療器機 1조와 약간의 技工 器資材를 마련하고 李德滿(1957년 서울 齒大 卒業)을 레지던트로 하고 Marray Maxwell은 科長으로 임용하여 1959년 6월 齒科가 新設되었다.

技工室에는 김영부와 李河鎭이 근무하였고 看護員으로는 박세시리아(현 분도회 修女)가 수고하였다.

1960년 4월 空軍에서 제대한 奇昌德(1948년 서울 齒大 졸업)이 專任講師로 발령받음과 동시에 科長으로 취임하여 外來診療와 學生教育, 研究活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齒科는 外科學教室에 속해 있었으므로 尹德善外科學教室 主任教授의 지도하에 있었다. 1960년 軍委託教育病院으로 지정되면서 1961년부터 齒科에도 2명이 배치되어 尹熙哲과 全國奉이 입국하게 되고 李德滿은 2년차 修鍊醫로 看護高等技術學校 講義를 담당하였다. 技工室에는 1961년 세브란스病院 齒科 技工室에서 근무하던 金泰益이 技士로 발령되었다. 1962년 奇昌德 專任講師는 助教授로 승진되고 修鍊醫로 鄭潤杓, 崔俊虎가 입국하였으며 1963년에는 金基嫻, 鄭博敏등이 입국하였다. 4년간의 修鍊過程을 수료한 李德滿은 5월에 東京醫大 齒科大學 小兒齒科에 유학차 渡日하였다.

1963년 6월 梨大 教授로서 附屬病院 齒科科長이었던 金萬壽(1940년 京齒專 卒業)가 副教授로 부임해 오므로 齒科學教室이 독립되고 主任教授 署理로서 教室 責任을 맡게 되었다. 1966년에는 1964년 陸軍에서 제대하고 레지던트로 입국하였던 金光鉉

(1956년 서울齒大 卒業)이 4년차의 修鍊醫過程 수료와 동시에 專任講師로 發令되어 教職員이 3명을 증원되어 명실상부한 診療와 教育, 研究活動이 활성화되었다.(당시의 齒科修鍊醫過程은 外科에 준해 4년제였음) 1967년 3월 金萬壽副教授가 教授로 승진되면서 齒科學教室의 主任教授로 任命되고 동년 7월에는 奇昌德助教授가 사직하였으나 外來教授職의 사령을 받고 齒科學教室과의 유대는 계속되게 되었다.

1970년 金萬壽教授의 사직으로 1968년 醫學博士學位를 취득하고 또 助教授로 승진되면서 日本으로 건너가 九州齒大와 東京醫科齒科大學에서 齒科矯正學을 연구하고 돌아온 金光鉉 助教授가 齒科科長 겸 主任教授署理로서 齒科學教室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62년 附屬病院으로 편입된 聖家病院은 1970년 일부를 낙성하고 이전한 후에도 계속 증축하여 1973년 완공을 보면서 齒科를 신설하게 되어 6월에 教室 출신인 裴昶이 專任講師로서 科長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聖家會 修女들이 운영하는 聖母慈愛病院에도 教室 확장계획에 따라 1975년 齒科를 개설하게 되어 본 教室 출신인 金建一이 專任講師로서 科長에 任命되었다.(1981년 2월이후는 개인임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음)

1977년 3월, 1976년 美國의 Loyola齒科大學으로 齒科矯正學을 연수하기 위하여 渡美하였던 崔牧均 專任講師가 수학을 마치고 귀국하자 5월에 金光鉉 科長이 사직하고 中央病院 齒科科長으로 옮기면서 外來教授로 推戴됨에 따라 崔牧均 專任講師가 科長職을 승계하고 9월에 助教授로 승진되면서 主任教授署理로 任命되었다. 이보다 앞서 5월에 海軍에서 제대한 본 教室 출신인 李鳳遠을 專任講師待遇로 발령하여 教職員의 결원이 보충되어 있었다.

1977년 8월 “江南 마스터 플랜”에 의거 착공된 江南聖母病院이 1980년 5월에 개원하면서 1980년 3월 專任講師에서 助教授待遇로 승진된 裴昶 教授가

5월에 신설된 齒科의 科長으로 전보되었다. 裴昶 科長의 전속으로 聖家病院 齒科科長 후임에는 1973년 慶熙齒大를 졸업한 崔仁이 專任講師待遇로서 임명되었다.

1982년 3월 崔牧均 助教授가 副教授로 승진되고, 聖家病院의 崔仁科長은 專任講師로 승진하였으나 4월에 사직하고 釜山 高神醫大 附屬病院 齒科科長으로 옮기어 후임으로 본 教室 출신인 李裕日이 제대와 동시에 專任講師待遇로서 科長에 임명되었다. 또 한편 서울齒大 口腔外科에서 수련을 마친 金慶욱이 專任講師待遇로 江南聖母病院 齒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1983년 3월 전년도 8월에 博士學位를 취득한 裴昶 助教授待遇와 2월에 博士學位를 취득한 李鳳遠 專任講師는 助教授로 승진되었고 이해 6월 金慶욱 專任講師待遇는 壇國大學으로 옮기고 8월에는 裴昶 助教授가 日本 昭和齒科大學으로 齒科矯正學을 연수하기 위하여 유학을 떠나게 되어 裴昶 科長 代身 李鳳遠 助教授가 科長代理으로 任命되었다.

1984년 3월 李裕日이 專任講師로 승진되는 한편 본 教室 出身으로 개업중이던 朴金洙가 專任講師待遇로 齒科에서 勤務하게 되었으며 大田聖母病院에 齒科가 新設됨에 따라 丁海哲(慶熙齒大 1978년 졸업)이 專任講師待遇로 科長에 任命되어 地方病院으로까지 教室이 확충되었다. 9월에는 1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裴昶 助教授가 科長으로 復歸하였으며 10월에는 李鳳遠 助教授가 사직하고 개업을 하였다.

1986년 3월 수련을 필한 李哲遠을 專任講師待遇로 임용, 江南聖母病院으로 보직 발령하였다. 또 議政府聖母病院에도 齒科가 新設되어 沈賢求('86年 延世齒大卒業)을 囑託으로 發令하여 齒科를 運營케 하였다.

1987년에는 崔牧均 副教授가 教授로, 江南聖母病院 裴昶 助教授가 副教授로, 江南聖母病院의 李哲遠

과 議政府聖母病院의 沈賢求는 專任講師로, 聖家病院의 李裕日 專任講師는 사직하고 金珍泰가 專任講師待遇로 각각 승진 또는 발령되었다. 1989년에는 聖母病院의 朴金洙 專任講師와 議政府聖母病院의 沈賢求 專任講師待遇는 사직하고 江南聖母病院의 李哲遠은 助教授로 승진되는 한편 金鉉泰('82년 서울齒大 卒業)는 議政府聖母病院에 崔東益은 新設된 聖마오로病院 齒科에 또 宋賢哲도 新設된 빈센트病院 齒科에 專任講師待遇로서 발령되었다.

2. 教育 및 診療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1954년 4월 8일 文敎部 告示 제780호로 인가를 받은 聖神大學 醫學部는 4월 19일과 20일 入學試驗을 실시하여 79명(정원 50명)을 선발하고 편입생을 합하여 146명이 豫科 1學年에 재적하였으나 本科 3學年에 이르러서는 39명이 되었다. 1958년 後學期부터 이들 一期生들에게 齒科學 강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강의는 首都醫科大學 第2 附屬病院 齒科科長 金규澤 教授가 주1시간 1學期 16시간 1學點을 담당하였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Maxwell 科長이 醫學科를, 李德滿 레지던트는 聖바로 看護學科를 담당하여 강의하였다.

1960년 奇昌德이 專任講師로서 科長에 부임한후 부터는 정상적인 학생 강의가 시작되었다. 요사이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醫科大學에서의 齒科學講義는 통일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口腔領域중 醫科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症候群과 기타질환의 鑑別診斷을 위시하여 醫師로서 알아두어야할 齒科分野의 질환과 應急處置 등을 주로 강의하였다.(醫學科는 1966년까지 奇昌德, 看護學科는 1963년까지 李德滿, 1964년이후 金萬壽教授가 擔當) 看護學科 강의는 현재까지 成人看護學의 한 분야로서 한 學期 6시간씩 강의하고 있다.

현재 醫學科에서의 齒科學 강의 목표는 齒科學의 일반적인 개념, 齒科學의 분야별 소개, 一般醫學과

의 상호 연관성 및 상호 보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의함으로써 一般醫로서 齒科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1) 口腔 및 顎顔面の 解剖生理, (2) 唾液腺 疾患, (3) 齒牙의 變形, (4) 齒周 疾患, (5) 顎關節의 病變, (6) 不正咬合, (7) 顎骨의 病變, (8) 全身疾患과 口腔組織과의 關係, (9) 齒科領域의 應急處置, (10) 口腔組織 移植 등이다.

환자 진료는 구 聖家寄宿舍자리 벽돌 기와 2층건물의 1층 도로변 큰 방에서 시작되었으나 1957년 12월에 착공한 聖母病院 건물이 1961년 12월에 준공되어 2층에 24명 정도의 診療室을 확보하고 그안에 1.5평 정도의 技工室을 마련하고 美國 구호물로 들여온 4대의 치료대(Ritter 美製)를 직접 수리하여 1대만은 에어터-빈을 부착하고 기타 각종 장비도 구호물로 갖추어 진료를 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전문 진료 과목이 분리되지 않고 一般齒科를 두루 진료하였으나 口腔外科分野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초기의 인턴 및 레지던트 修鍊課程에 隣接科인 耳鼻咽喉科와 口腔外科醫로서 기본이되는 外科手術室 癲醉科 病室을 1개월씩 派遣實習케 하였으나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인식부족인 醫師들의 비협조로 중단되고 말았다.

1969년 金光鉉 助教授가 日本에서 齒科矯正學을 연구하고 돌아온 후부터 矯正治療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71년 頭部規格放射線寫眞機의 구입으로 頭部規格 寫眞을 찍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顎態模型상에서의 진단에만 의지하던 것을 탈피 顎態模型과 頭部規格 寫眞을 혼합 사용하게 되어 矯正治療에 커다란 발전을 보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수술법에 의한 外科의 矯正治療도 시도되어 外科手術 入院患者도 항상 10명 내외로 되어 口腔外科도 크게 발전하였다. 70년대 중반부터는 齒科移植手術을 시행하므로써 韓國 齒科界에 口腔移植學

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1976년 奇昌德 外來教授, 金鴻基 外來教授와 金光鉉 科長들이 주축이 되어 大韓齒科移植學會(후에 大韓齒科人工臟器移植學會로 개칭)를 聖母病院에서 창립하고 敎室員들이 이에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써 齒科移植學을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 드리게 되었으며 타 敎室에 앞서 移植手術을 진료에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齒科 治療臺도 1968년에 독일 시멘스사제로 최신형 1대를 구입하고 1971년에는 낡은 治療臺 2대를 日本 요시다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모터 엔진 시대에서 에어터-빈시대로 완전 전환하게 되었다. 1980년에는 남은 장비 2대도 독일 시멘스 제품으로 교체하였으며 1986년 汝矣島 新築病院으로 이전과 동시에 독일의 최신형 제품인 카보 治療臺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진료 업무에 한층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80년에 개원한 江南 聖母病院 齒科는 日本의 海外經濟協力基金으로 장비를 도입하게 되어 治療臺 4개가 모두 日本 제품이었으나 그 외의 기자재는 주로 美國에서 구입하였다. 2층 診療室에 있던 技工室을 1985년 3층으로 이전, 診療室이 대폭 확충되어 새로운 治療臺를 3대 더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환자 진료가 한층 신속 원활하게 되었다.

3. 研究 및 學術行事

1) 敎室研究

가. 大學院 및 學術大會 참여

본 敎室의 첫 연구논문으로는 1961년 奇昌德 專任講師의 [市内 數個 會社 職員의 口腔 衛生 狀態]로서 정확하고 신뢰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63년 奇昌德 助教授의 [數種 藥物 alkaloids의 生體內 血液凝固促進作用에 關한 研究]등 수편의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病理 및 生化學的 연구의 장이 전개되었다. 1960년 본 大學 大學院課程이 설립된 이후 奇昌德 助教授가 첫 博士學位(1965년, 拔齒後 血液

凝固와 生體各臟器 特히 副腎의 組織化學的 研究)를 취득 하였으며 그후 金萬壽 副教授(1966년, 人胎兒半月狀神經節細胞의 定量的研究), 金光鉉 助教授(1968년, Roentgeno cephalometry에 의한 韓國인 두부 및 악골의 계측학적 연구), 崔牧均 專任講師(1978년, 교합거상이 가토 악관절에 미치는 병리조직학적 변화), 裴昶 助教授(1982년, 흉관 임파구에 의한 일시적 형질세포조혈소 형성기전), 李鳳遠 專任講師(1983년, 연폭로 지역 차이별로 본 탈락유치내의 연합량), 朴金洙 專任講師(1986년, 시험관내 단핵포식세포의 분화 및 대식세포의 포식에 관한 연구), 李哲遠 專任講師(延世醫大 1987년, 비타민E 투여가 DMBA유도 구강상피암에 미치는 영향), 李裕日 專任講師(가醫大 1987년, 혈액응고인자 XIII결핍이 섬유원소, 섬유소용해산물 및 Plasminogen양과 사후 심혈 응고성에 미치는 영향)등이 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또 碩士學位(성명, 학위취득 년도 및 대학원)는 裴昶(1970, 서울대), 姜弘求(1971, 서울대), 金建一(1973), 金文坤(1973, 서울대), 崔牧均(1973), 李鳳遠(1974), 白善彦(1975), 金成坤(1975), 崔順奎(1977), 任文植(1978), 李裕日(1979), 金石均(1980, 서울대), 朴金洙(1983, 서울대), 崔永哲(1983, 연세대), 李哲遠(1984, 연세대), 金寧柱(1985, 서울대), 崔丙哲(1985, 서울대), 金仁洙(1987, 서울대), 崔容彰(1988, 서울대), 河龍鎮(1988, 가의대), 崔東益(1989, 서울대)들이 취득하였다. 齒醫學科의 大學院課程은 1971년 碩士課程만 설치되었고 齒醫學科의 博士課程은 현재(1977년부터) 外科學敎室과 통합되어 있음으로 博士課程은 外科學敎室 혹은 기타 基礎學敎室에서 이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본 敎室에서 연구 발표된 논문은 총 100여편에 이르고 있다.

나. 臨床教育 및 研修會

醫局員의 教育은 1961년 인턴이 입국된 이후부터 독립된 齒科修鍊醫教育規定(1961년 3월 20일 결재)

을 만들어 臨床외에 講義 및 抄讀會와 症例報告 등을 매일 1시간씩 하여 왔으며 주 1회는 外來招聘講師의 강의를 받아 왔으며 修鍊修了시에는 1편 이상의 論文을 발표케 하였다. 齒科修鍊醫教育課程 履修者는 다음과 같다. [입국년도 : 성명, 출신교, I : 인턴, R₁ : 레지던트수련기간, 1967년 이후의 齒科修鍊醫教育課程은 齒科醫師協會에서 정한 년한(I, R₂)에 준함으로 약함]

1959 : 李德滿, 서울, R₁, 1961 : 尹熙哲, 서울, I, 全國奉, 서울, I, R₃, 1962 : 崔俊虎, 서울, I, 鄭潤杓, 서울, I, 1963 : 鄭博敏, 서울, I & R₃, 金基嫻, 서울, I, 1964 : 金光鉉, 서울, R₁, 1967 : 裴昶, 서울, 1968 : 姜鴻圭, 서울, 안병근, 서울, 1969 : 金건일, 서울, 김문곤, 서울, 1971 : 崔福균, 서울, R₂, 이봉원, 서울, 1972 : 백선언, 서울, 김성근, 서울, 1973 : 이수인, 경희, 1974 : 최순규, 서울, 1975 : 임문식, 서울, 임승찬, 서울, 1976 : 이유일, 서울, 1977 : 김석균, 1978 : 김진호, 서울, 한기설, 서울, 1979 : 이종철, 서울, 1980 : 최영철, 연세, 박금수, 서울, 김승기, 서울, 서학원, 서울, 1981 : 이창영, 서울, 한경익, 서울, 전종익, 경희, 1982 : 김석준, 경북, 1983 : 이철원, 서울, 김영주, 서울, 최병철, 서울, 1984 : 김인수, 서울, 김진태, 서울, 1985 : 최용창, 서울, 하용진, 서울, 1986 : 안중규, 서울, 최동익, 서울, 1987 : 曹慶鎬, 서울, 宋賢哲, 서울, 등이고 1988 : 金正華, 金志鎬, 黃炳珏, 1989 : 尹盛郁, 黃太周, 1990 : 朴民秀, 吳長均 등은 서울대 출신으로 入局 修鍊中에 있다.

1971년부터 日本에서 齒科矯正學 研修를 마치고 귀국한 金光鉉 科長이 본 教室에 臨床家를 위한 矯正教育課程을 개설하여 매년 2일간의 課程으로 10여명 단위의 研修教育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와 크게 환영을 받았다. 1975년 7월과 1978년 10월에는 美國 하버드大學의 金永昊 教授를 招聘 5일간씩의 齒科矯正學研修를 실시하였다. 矯正뿐만 아니라 日本의 横田成三(九州齒大), 平野忠彦(鶴見大), 福興碩夫

(日本大), 福原遠郎(昭和齒大)등 여러 教授들을 招聘 각 분야에 걸친 臨床特講을 개최하였다. 1977년부터는 醫局員은 물론 臨床家를 위한 齒科移植學研修會를 大韓齒科移植學會와 본 教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1~2회씩 聖母病院과 江南聖母病院에서 개최하여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齒科移植學 보급과 발전에 공헌을 하여 왔으며 1985년 5월에는 齒科移植學會 學術大賞을 본 教室에서 수상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韓國에서 齒科移植學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學會活動 및 海外研修 가. 學會活動

1960년 奇昌德 科長은 大韓口腔外科學會 學術理事로 지명되면서 부터 齒科補綴學會會報, 齒科醫學史研究會誌에 이어 1961년에 口腔外科學會 會報를 발간하였으며 그후 理事, 副會長(1972~74), 顧問 등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1962년 10월 大韓齒科豫防學會 창설때에 그 일역을 맡았고 副會長(1964~68)으로 會長을 보좌했으며 大韓口腔保健協會創設에도 참여하여 理事로서 관여하였다. 醫學分野에는 1961년부터 微生物研究會, 生物醫學研究會등을 주관해 오다 1974년에는 大韓免疫學會 창립과 동시에 理事, 副會長(1978~80)으로 免疫學會 運營에 참여하였다. 金光鉉 科長은 齒科矯正學會 副會長(1970~74), 會長(1974~76)을 역임하여 學會에 헌신하였으며 본 教室의 矯正學 연구 및 진료에 기반을 이루었다. 1976년에는 齒科移植學會 창립위원으로 金光鉉 科長, 崔牧均 講師가 참여, 學會創立에 공헌하였으며 金光鉉 科長은 副會長(1976년)으로 피선되었으며 그후 1980년에는 會長에 選任되었다. 1982년 제7회 總會에서 崔牧均 總務理事는 副會長에 1989년에는 會長에 選任되었으며 總務를 맡아보던 裴昶 科長은 1989년에 副會長에 선임되었으며 李鳳遠 講師는 理事에 任命되었다.

나. 海外研修

李德滿 講師가 教室員로서는 최초로 1963년 5월 日本 東京醫大 齒科大學 小兒齒科에 留學하여 1967년 귀국하였으나 복직을 하지 않고 1969년 筆洞 聖心病院에 齒科를 신설, 科長으로 취임하였다. 奇昌德 助教授가 1966년 11월부터 1967년 3월까지 日本 中央實驗動物研究所에 留學을 하여 實驗動物의 사육 방법과 기술 또는 動物實驗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귀국하여 醫學實驗分野의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 체계 확립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金光鉉 助教授는 1968년 日本 九州齒大, 東京醫科齒科大學에서 1년간 矯正學 研修를 마치고 귀국 후 본 教室은 물론 韓國 齒科矯正學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그후에도 美國, 日本 등에서 수차의 연수 교육을 받았다. 1976년 부터 1년간 崔牧均 講師가 美國 Loyola齒科大學에서 矯正學研修를 마치고 돌아와 歐美 先進國의 최신 지식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裴昶 助教授는 1983년 日本 昭和齒科大學에서 1년간의 矯正學研修를 통하여 훌륭한 연구 업적을 쌓아 학문 발전과 국제 교류에 일익을 담당케 되었다. 또한 단기 연수 목적을 위해 崔牧均 副教授가 日本 松本齒科大學을 방문(1981) 移植學研修課程을 수료하였으며, 1985년 11월에는 日本 茨城縣에서 개최된 韓日 ceramic seminar에서 연사로 참가 <Bite-force resistance of dental implant>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1986년 4월에는 日本 大阪에서 개최된 國際임프란트 심포지움에 연사로 참가 <Metal versus ceramic in dental implant material>를 발표하였으며 座長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1990년 4월에는 日本 나고야에서 개최된 국제임프란트 심포지움에 崔牧均 教授가 moderater로 裴昶 副教授는 연제<Histopathological study on several new types of blade implant>의 연자로 참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學術研究 외에도 본 教室과 外來敎職員과의 친목 및 유대강화와 학문 지원을 목적으로 1972년 4월 聖齒會가 창설되어 주 1회씩 學術集談會를 하여 왔

으며 교실 연구 활동도 지원하여 왔다.

初期의 會員은 教室員의 奇昌德, 池光源, 金鴻基, 文洪祚, 趙載估, 許妍郁등 이었으나 그후 모든 外來敎職員과 教室 출신들이 포함되었다.

4. 現 況

1) 聖母病院

教 授	崔牧均
專任講師待遇	崔丙哲
레지던트 2年次	金志鎬
1年次	黃太周
인 턴	吳장均

2) 江南聖母病院

3) 議政府聖母病院

專任講師待遇	金鉉泰
--------	-----

4) 聖家病院

專任講師待遇	金珍泰
--------	-----

5) 聖바오로病院

專任講師待遇	崔東益
--------	-----

6) 聖빈센트病院

專任講師待遇	宋賢哲
--------	-----

7) 大田聖母病院

專任講師	丁海澈
------	-----

8) 外來敎授: 奇昌德, 金光鉉, 文洪祚, 池光源, 趙載估, 姜大鍵, 李炳允, 許妍旭, 金基嫻, 鄭博敏.

9) 外來副敎授: 白善彦, 金健一, 李鳳遠.

10) 外來助敎授: 李秀仁, 崔順奎, 金石均, 任文植.

11) 外來專任講師: 韓基諱, 金鎮皓.(1990年 11月 末 現在)

中國口腔醫學史의 一人者

周大成 博士 探訪

李 丙 台*

* 大韓齒科醫史學會會長・大韓齒科補綴學會會員・月刊齒科研究 編輯人・李丙台齒科醫院長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11卷 第1號 1990년 6월 30일에 안내된 것처럼 본 학회에서는 中國 口腔醫學界를 訪問했다.

특히 李漢水 前會長과 書信 交流를 맺고 있던 周大成 博士를 李丙台 會長이 自宅으로 訪問했다.

그런데 周大成 博士는 中國醫史學 분야에서는 唯一한 學者이며 지금도 이 분야에 情熱을 쏟고 있다.

이 글은, 中國 北京에서 周大成 博士를 만나는 과정을 소상히 쓴 紀行文이지만 目的이 齒科醫史學 발전에 있으므로 여기에 게재한다.

□ 편집자 □

李漢水の 메시지

北京에서 周大成 博士를 만나는 일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맛 먹을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周大成 박사를 알기로는, 李漢水 박사가 1981년 日本 齒科醫史學會誌에 게재된 논문을 보고 周大成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로 서신을 교환한 때부터다.

국가나 가정에서도 먹고 살기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문화적인 면에 신경을 쓰게 된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면 문화라던가 역사라던가 하는 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음이 당연하다.

과학, 의학, 치의학분야에서도 인기있는 전공과목이란 수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분과학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면에서 李漢水 박사는 우리나라 치과 의사로서는 남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齒科醫史學의 체계를 세우는데 60이 넘도록 평생을 바쳐온 분이다.

李漢水 박사는 大韓齒科醫史學會의 초대회장이고 필자는 현회장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회원들의 참여도가 활발하지는 못한 편이다.

北京에서 3박4일간 있게 되므로 北京서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한다. 특히 필자의 경우 周大成 박사를 방문해야만 北京방문에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선생, 北京가시면 周大成 博士를 만나고 오십시오. 이 건 주소고, 이 건 제가 쓴 편지입니다.”

李漢水 박사는 손수 육필의 편지와 주소를 메모지로 들고 오셔서 주셨다.

◇필자에게 건네준 <중국구강의학발전약사 1982>. 이것은 1991년 3월에 새 책이 출간된다.

오늘밤 뿐이다

北京에 도착한 이튿날 北京醫科大學을 다녀와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金가이드에게 周大成 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다시 北京가이드 徐양에게 말하고 주소를 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 9시가 넘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내일저녁은 북경의 마지막 날 밤이라고 가만히들 있을까.

주중엔 周大成 博士택의 전화번호도 없다. 주소를 알면 지역과 이름을 알면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도 모른다. 사실이 아닐텐데... 이들이 성의가 있으면 北京齒科大學이나 口腔醫學院에 물어 보아도 좋으련만... 이것은 모두 필자에게 스스로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것.

저녁이 아니라 밤9시30분 구기서 선배에게 周大成박사를 뵈러 가자고 하자니까, OK다.

金가이드는 이 시간까지 호텔에 돌아오지 않았다. 徐양을 데리고 밤에 가자니 남의 눈도 있어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徐양,具선배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周大成 박사 만나러 갑시다”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셋이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까?”

“金가이드는 기다려도 오질 않고, 徐양과 가자니 밤이 늦었고, 오늘을 넘기지는 말아야겠고...”

“올습니다. 저두 예예, 사실이 좀 그랬더했습니다. 곧, 방으로 가겠습니다.”

호텔 앞에는 택시가 줄지어 있었다. 徐양은 필자

가 준 메모지의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준다.

北京의 밤조명은 밝은 편은 아니다. 택시에는 필자具선배 그리고 徐양, 이렇게 셋이 탔다.

야, 이제는 가는 구나.

그러나 밤이 늦었다. 밤 10시.

실례를 무릎쓰고 이렇게 강행하여야 하나.

“徐양, 너무 늦었지?”

“네, 늦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바빠서 그러니 그쪽 박사님도 이해하실겁니다.”

위안의 말이 반가웠다. 기사는 걸가는 사람에게 묻더니 뒷길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내려서 골목을 두리번거리더니 차를 다시 후진시켜 방향을 바뀌한참 갔다.

徐양과 기사는 중국말로 대화를 한다.

“徐양, 뭐라고 하는 거야?”

“동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다가 뒷 얘기가 고무적이었고 中國人 기사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는지 모른다.

현실적인 郭기사(司杭쓰지 : driver)

차를 세우고 물으러 나갈 때는 꼭 차문을 잠구도록 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번쯤 차를 되돌렸고, 골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네다섯번 정도는 된다.

그래도 표정하나 변하지 않는다.

“徐양, 기사에게 밤늦게 수고 많다고 전해주시. 미안하다구...어서”

徐양이 뭐라구 뭐라구 하니까, 기사는 껄껄 웃으며 몇마디 뭐라고 한다. 염려말라는 소리겠지.

비포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택시가 교차할 수 없는 좁은 길이다. 차를 세우고 오른 쪽으로 굽이친

골목을 기웃거리더니 없어졌다. 시간은 5분이 지났다. 갑자기 기사는 소리치며 뛰어온다.

...막 주무시려던 참인데 韓國 서울서 李漢水의 편지를 가진 李丙台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낮에는 北京醫科大學에 갔다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해서 늦게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명함을 보여주니까 어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徐양의 통역이다. 기사의 입가에도 미소가 돈다.

차에서 내려 기사의 뒤를 따라 50 미터쯤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다. 왼쪽은 신축건물 공사장으로 깊게 지하를 판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50축쯤되어 보이는 대문 외등이 켜있고 풍채 좋고 인자하게 웃는 노인과 곱게 늙은 할머니가 웃으며 두 손을 벌린다.

北京 역시 신도시 건설 및 재개발 사업으로 지명이 바뀌었기 때문 어지간해서는 찾기가 불가능했는데 중국인 郭기사(杭司 쓰지)가 애써서 찾은 것이다.

서울서 오셨오?

대문을 들어서서, 앞서가는 두분뒤를 딸아 들어갔다. 자그마한 마당에서 유리문을 열고 들어 서는데 바로 서재다.

學者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방의 두면은 내실과 통하는 문이 있고, 다른 면은 유리창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책장으로 둘러쌓여 있고 간소한 탁자와 의자가 있다.

필자로서는 생전에 처음 뵈는 분이고, 周大成 博士 그분께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침입(?)방문객이다. 이제는 체면이고 주저하는 마음이 싹 가셨다.

周大成 박사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건장한 체격을 닮은 아들의 표정은 필자 일행 셋을 온후하고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기쁘고 흐뭇할 수가 있을까.

주인이 앉으라는 말도 없었지만 통역할 徐양이 앉을 의자 하나를 비어놓고 옆자리에 자리잡았다.

周大成 박사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퍼보이지는 않았으나 연세때문에 행동이 명쾌하지는 않았다.

“서울서 오셨습니까?”

“네, 李漢水 선생님께서 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고 특색있는 필체의 편지를 내놓았다. 周大成 博士가 편지를 뜯는 동안 필자는 일어 나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드렸다.

“밤늦게 무례인줄 알면서도 오늘이 아니면 못 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 뵈게 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편지는 읽던 周 박사가 테이블에 편지를 내려 놓으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한다.

“李漢水 박사와 서신왕래가 뜸한지가 1년 6개월은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부인이고 아들인데 일본서 치과공부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중이었읍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는 날인가 봅니다.”

周박사는 식구 소개를 했고 부인은 차를 내놓는다. 아들과 인사, 目禮로 서로 웃고 손을 잡았다.

“선생님께서 醫學史분야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읍니다만 이처럼 직접 만나 뵈게 되어 無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쌓아 놓으신 업적에 뒤따른 勞苦가 많으셨을 줄로 믿고 그 점에 대하여 존경심을 금할 수 없읍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齒科醫學史에 있어서 체계적인 발전은 韓國이 더 됐다고 생각합니다. 李漢水 박사의 著書도 두 권 가지고 있습니다. 韓國에서 이 방면의 學會활동과 저술이 활발하여 비록 국가는 다르지만 반갑고 흐뭇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周박사는 아들에게 명함을 가져오게 하더니 진지하게 몇자를 고쳐 써서 필자에게 주었다. 손떨림도 없고 시종 웃으며 대화에 응했다.

◇筆談. 周大成 博士는 결정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때는 필자에게 글을 쓰면서 통역 徐양의 협력을 구했다.

솔직히 말해서, 北京 현지 가이드 徐英 양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徐양 자신도 그저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까지 안내한다는 식의 표정은 없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볼때 썩 유쾌한 일은 못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周박사와 筆者의 대화가 오가고 특히 周박사의 열성적인 태도와 대화 내용에 徐양 자신도 신이 났고 즐긴 듯했던 눈에 초롱초롱함이 더했다.

執念의 周大成 博士

명함의〈北京口腔醫院 口腔豫防科 主任〉이란 직함을 지우고 〈首都醫學院 教授 口腔醫學系 醫史研究室〉로 고쳐서 주신다. 서울서 듣기로는 北京의 변화가에 開院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정이 달랐다. 그래서 가이드들에게 개업한 齒科醫院이면 이름만 알면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다그쳤던 일도 허무했음을 느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中國에서의 개업의의 위치는 별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작년에 퇴임하고 首都醫學院에서 醫史學전공 후진 4명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中國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醫科齒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는 中醫 西醫로 구분하고 民間醫(검정, 한지 비슷함)도 있습니다. 韓國의 齒科醫師를 醫師口腔(科)醫師라고 합니다. 그리고 齒科醫師도 6년, 5년, 3년...省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년 과정에는 師대신 士를 씁니다. 그리고 전국에 33개

의 口腔系・口腔醫學院(齒科大學)이 있습니다.”

“醫史學 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84년에 강좌가 열렸습니다.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고 首都醫學院 口腔醫學系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는 의료과・오관과・구강과・의료기계수리・공공위생・약학・생물연구중심이 있습니다.”

필자는 韓國에서의 齒醫學과 大學, 協會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했다.

“선생님, 제가 學會長으로 있지만 韓國에서 다른 學會에 비하여 회원의 수도 적고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뛰어나질 못합니다. 작년 4월에 第14次 亞細亞太平洋齒科醫師會가 서울서 있었는데 그때 스리랑카의 닥터 쿠레이가 古代 Ceylon의 齒科醫學에 대하여 발표하더군요. 그래서 하두 기빠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나라도 醫史學에는 별 흥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흥미를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하는 인원이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全無하지만 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博士, 금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48세입니다. 말(馬)띠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는 일마다 고단합니다.”

徐양이 통역으로 설명을 하자 호탕하리만치 웃었다. 부인도 함께 웃는다. 周박사뒤에서 줄곧 즐거운 표정이다. 티끌만한 꾸밈이 없는 碩學 내외와 가족과의 만남이다.

“저는 80입니다. 李博士께서는 이미 이 分野에 크게 기여했고 업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世界的으로 공헌하셔야 합니다.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徐양이 신이 나서 통역한다.

“과찬(過讚)의 말씀 송구스럽습니다. 선생님, 韓國에는 李漢水 奇昌德 두 선배가 계셔서 저희같은 後學들이 편합니다.”

北京서 연구생활 40년

周大成 博士는 1910년 11월 22일(음력), 山東省에서 태어났다.

해방전에는 中國의학대학 沈陽分會(分校)에 있다가 北京으로 온지 40년됐다. 줄곧 교직에 있었다.

1937년에 천우화 女史와 결혼해서 아들 4형제를 두었다.

금년 80세.

1955년에는 〈中華口腔科雜誌〉에 〈中國原始人的口腔〉을 비롯 齒科醫史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최근까지 논문과 저술활동을 계속하고 後學양성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日本으로 건너가 강연도 하곤 하였다.

필자는 준비해간 〈大韓齒科醫師協會誌〉〈齒醫新報〉〈月刊齒科研究〉〈大韓齒科醫史學會誌〉〈齒科醫學辭典〉〈각두기로 통하는 나(수필집)〉과 부인께는 고급 인삼비누세트를 기념물로 내놓았다.

그러자 周박사는 20페이지의 〈中國口腔醫學發展簡史, 北京口腔醫院, 1982〉에 친히 서명까지 하여 내놓고 부인께선 중국차와 열썬들이 정통 중국 젓가락을 주셨다.

“선생님, 이제까지 이 논문을 못보고 있었으니 창피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잘 찾아 뵈었습니다.”

◇통역, 필담을 마친후 서재에서. 이때가 밤 12시.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다”고 한 周大成 박사는 80세인데도 건강이 좋다.

“내년초, 1991년 1월이나 2월경에 〈中國醫學史考〉가 출판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출판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또, 만납시다.

밤 12시, 자정이다.

周大成 博士, 이분 지칠줄 모르고 밤 새울 양으로 말씀을 이으려 하였다. 고령인데다 말씀의 어느 순간엔 분명치 않는 것같은 느낌도 들었다.

아쉽고 짧은 1시간이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일어났다.

필자보다 더 아쉬워 한다. 일어나려니 들어올때의 미안감보다 더 미안한 느낌이다.

“일본서 한 번 만납시다. 중국오시면 또 뵙시다.”

“선생님, 한국에는 안 오십니까?”

“거동때문에 단독보다는 보호자격으로 사람을 동반해야 하고 초청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필자 일행은 대문밖에 나왔다. 환하게 웃는 周박사 내외분이 대문에 섰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만수무강을 빌며 작별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골목을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내외의 모습이 외등에 비치고 있었다.

택시속에서 徐양이 이야기한다.

“단장선생님, 토론 정말 진지했습니다. 저도 감명받았지요. 周박사님, 훌륭한 학자이신걸 직접 느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진지했습니다.…”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날 짜 : 9월 15일 아침 8시

장 소 : 봉주르다방

안 건 : 1. 학회 중국방문 보고겸 학술집담회를 10월중에 함.

2. 학회지 원고 모집.

3. 서치·공치 합동학술대회에 학회장(이병태)의 라운드 테이블 강의 참여.

참석자 :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홍예표, 김성남, 이시우

中國齒科界 訪問 報告

• 방문기간 1990년 6월 21일부터

1990년 7월 2일까지

• 방문목적

1. 현재, 전혀 알려지지 않은 中國의 口腔學에 관한 정보수집 및 학문교류 촉진.
2. 양국 치과계 상호관심사에 관한 사항 탐구.
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치과현황 파악.
4. 양국 齒科醫師學者의 접촉, 교류추진.
5. 우리나라의 齒科出版物 및 韓國產 齒科器材 전달.

• 방문기관(인사)

1. 北京齒科大學校(程伯基 副校長)
2. 北京齒科大學校 口腔醫學院(張震康 院長)
3. 首都醫學院 口腔醫學院 醫學院研究室(周大成 博士)
4. 延邊醫學院 醫學系(李基芳 主任·副教授)
5. 延邊醫學院 附屬醫院(李基芳 院長)
6. 延邊醫學院 醫學系 齒科學部(醫學系 口腔學科)(盧光秀 副教授)

7. 延邊衛生學校 附屬醫院(리대림 院長)

8. 延邊衛生學校 附屬醫院 口腔科(리金子 口腔醫師)

9. 延邊 朝鮮族自治州 紅十字會(金敬燕 副會長)

10. 燕邊朝鮮族自治州 衛生局(金敬燕 副局長)

11. 최경악 개체치과진료소(外)

• 기념품 전달

◦ 大韓齒科醫師學會誌 通卷 第10號 1989.

◦ 大韓齒科醫師協會誌 第4號 5月號 1990.

◦ 齒科新報

◦ 月刊 齒科研究 4月號, 5月號 1990.

◦ 齒科醫學辭典 李丙台著 1990.

• 韓國產 齒科器材 기증.

◦ dental syringe, impression tray, mirror, handle, explorer<五星産業>

◦ disposable needle<(株)新興>

◦ diamond bur<세신정밀>

◦ Lidocaine Hcl<光明藥品><柳韓>

• 방문성과 및 결과

1. 中國 唯一의 國立大學인 北京醫科大學校 및 口腔醫學院 당국자들과 兩國의 學術交流를 희망했고 1991년 5월 29일~31일 北京 1회 국제교정외과학회(Beij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thodontics and Surgical Orthodontics)에 韓國에서 많이 참여할 것을 제의하고 받아들임.
2. 中國은 韓國을, 韓國은 中國을 상호 상대국의 齒醫學/口腔學을 이해하는데 큰 시작이었고, 효과적인 방문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延邊朝鮮族自治州의 齒醫學 및 開院醫의 실태를 많이 파악하고 이해하였다.
4. 中國 의료정책 속의 齒科현황 파악에 발전적으로 접근함.
5. 中國口腔醫師 學者와 의견을 교환하였음.

• 기타

- 本학회 학술대회,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뉴내자호텔에서 “中國齒科界 現況”이란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보고 강연.
- 월간 치과연구 8월호부터 “中國齒科紀行”을 연 구재中.
- 大韓齒科醫師協會誌 8월호에 “北京醫科大學校 및 北京醫科大學 口腔醫學院”방문에 관한 화보 게재.
- (株)新興 社報 가을호에 권두언에 “中國齒科紀行과 우리” 기고.
- 서울特別市 齒科醫師會/公職齒科醫師會 '90종합 學術大學, 1990년 11월 10일, 63빌딩에서 round table에서 강연.
- 서울大學校 大學院 齒科補綴學 專攻 동문회, 1990년 12월 3일, “延邊朝鮮族 自治州의 齒科現況에 대하여” 강연.
- 서울特別市 鍾路區 送年學術大會, 1990년 12월 4일, “中國 齒科 開業醫(個體 齒科診療所)에 관하여” 강연.

本會 '90년도 學術會檢 “中國 齒科界 訪問 보고회”

本會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大韓齒科醫師協會 산하 分科學會로는 처음으로 中國을 방문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귀국한 바 있다(中國齒科界 訪問報告 참조).

지난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뉴내자호텔 6층 회의실에서, 中國訪問團을 인솔했던 李丙台 本會 會長의 슬라이드 강연이 있었다. '90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겸한 이날 50여 회원과 신홍(주), 오성산업, 세신정밀, 유한양행에 서도 참석, 보고강연을 들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中國에서는 唯一하고 最高의 시

설과 장비 그리고 우수한 두뇌와 학자들이 모인 北京醫科大學 口腔醫學院, 그리고 조선족학교인 延邊醫學院 口腔科 等 그곳의 齒科界에 대한 모든 것이 발표되었다.

本 會長은 “北京의 의료제도와 口腔科 현황을 추리하고 이해하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사 및 전임회장단 연석회의

날 짜 : 90. 12. 13 아침 8시

장 소 : 뉴내자호텔

안 건 : 1. 학회지 발간

2. 분기별 세미나에 외부인사(과학사·인류학전공 등)를 초청하는 방안.

3. 회원 추천에 관한 건

참석자 :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홍예표, 김성남, 김지호

제12권 제1호, 1991년 6월 學會誌 원고를 모집합니다.

本會에서는 다음호(1991년 6월 30일 발행)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의 내용은 반드시 齒科醫師學에 국한하지 않고, 本會 회원만의 원고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는 본회 및 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제11권 제1호 지난호 발간에 협조하신 분

洪禮杓 理事 10만원

金聖男 總務 10만원

李丙台 會長 10만원

□역대회장□

1960. 10. 7~1974 李漢水

1975~1981 李德一

1982~1983 李漢水

1984~1988 金正均

1989 6. 13~현 李丙台

종신명예회장

이동섭

이덕일

전 회장 이한수

직전회장 김정균

□임원명단□

회 장 이병태

부회장 박승오

신재의

이 사 김지호

허정규

배광식

홍예표

감 사 이시우

임경빈

1990년 12월 25일 인쇄

1990년 12월 30일 발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11, No. 2, 1990

제11권 제2호 통권12호

발행인 : 이 병 태

편집인 : 김 성 남

발행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의사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3동 409-1

Publisher : Lee, Byung-Tae

Editor in Chief : Kim, Sung-Nam

Address Yung-Doong-Po,

C.P.O.Box 41, SEOUL, KOREA

<비매품>